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0-901 1982년 8월 13일(금) & 1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ugust 13 & 1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政治犯가족 15명 斷食鬪爭

9일부터 연이틀 基督敎 협의회서 良心犯석방·拷問中止 요구

(서울)한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치범들의 가족 15명이 9일부터 연이틀째 모든 양심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한기독교협의회(KNCC) 건물내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있다.

처음엔 金大中씨夫人등30명 參加
경찰이 집밖못나오게 저지 15명만

이 단식투쟁에는 당초폭동교사죄로 20년형을 살고있는 김대중씨(56)의 부인 이희호여사등 30여명의 정치범가족들이 참가했었으나 이들중 절반 정도가 9일 하오 자택에 돌아간후 당국의 저지로 집밖을 나오지못하고 있다.

단식투쟁중인 한 정치범의 가족은『한번 이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면서 『이희호여사를 비롯 많은 정치범의 가족들이 집밖을 나오지못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치범의 가족들은 KNCC내 한 작은방 벽에 「모든 양심범을 석방하라」「모든 고문행위를 중단하라」등의 슬로건을 붙이고 단식투쟁중이다.

현재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감중인 반체제인사들의 공식적인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교회소식통들은 이들이 2배~3백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대중씨는 지난 80년5월 체포된후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전복기도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었으나 이후 정부의 특별사면조처에 따라 종신형으로, 그리고 다시 20년형으로 감형조처를 받았다.

보수당서 지지 표명
태평양정상회담 제안

(오타와11일=연합)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존·크로스비의원(외교정책담당)은 전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제의가 태평양연안국의 상호 협력증진에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수당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존·크로스비의원은 "태평양지역의 무역증대와 이 지역의 가능성에 대해 보수당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태평양연안국들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들 국가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평양국들과 캐나다간의 유대가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로스비의원은 보수당이 79년 집권당 시절 환태평양회담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었음을 상기시켰다.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기간 동안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캐나다 정부는 전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해야할 것이라고 크로스비의원은 말했다.

82년 서울 국제박람회

(서울12일=연합)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열리는 82년도 서울국제박람회에는 세계 40개국에서 253개회사가 참가한다고 12일 상공부가 발표했다.

한국무역진흥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외국인바이어 1만명, 관람자 8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화 $10억의 수출및 $5억의 수입에 관한 상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큰 회사중에는 미국의 컴퓨터회사 IBM, 비행기제조 보잉, 전투기제조 노스롭, 덴막의 레고, 스웨덴의 볼보(자동차), 일본의 미쯔비시등이 있다.

전대통령 방문일정
30일 정상회담과 각료회의
조·클락(보수당 당수)와도 만나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방문 공식일정이 밝혀졌다.

12일 트루도수상 측근에 의하면 전대통령 일행은 28일 하오 2시 오타와의 캐나다 군기지 터미날에 도착, 31일 상오11시 오타와를 떠날 때까지 3박4일 공식, 비공식 스케줄을 가진다.

전대통령 부처가 총독관저에서 여장을 푼 직후 약 400명의 캐나다교포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될 대통령초청 교민리셉션은 하오 6시부터 오타와의 샤토·로리에 호텔로 잠정 책정했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장소는 이미 오타와의 한국대사관 관저로 바뀌었다.

전대통령은 이날 교민리셉션직후 일부 인사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다.

도착 2일째인 29일 일요일에는 몬트리얼 근교 캐나다원호병원을 방문, 6,25 참전중 부상을 입고 아직도 병상에 누운 병사들을 방문한다.

30일 월요일 10시에는 의사당에서 트루도수상과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10시30분부터는 양국정부 각료회담, 정오에 트루도수상 관저에서 오찬회에 이어 3시30분 전대통령은 의사당에서 조·클락 보수당당수와 회담을 갖는다.

30일의 트루도수상 만찬회는 하오 6시30분부터 외무부빌딩인 레스터·피어슨 빌딩에서 거행되며 10여커플의 캐나다교포들도 초청된다.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토론토총영사관 직원들은 11일 하오 이상훈 총영사, 박영철 부총영사가 오타와로 급히 올라가는등 계속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으나 공식일정, 초청대상자등에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한편 3만 토론토 교민의 관심의 초점인 전대통령의 토론토방문 여부는 공식일정에는 포함 안됐으나 공식행사가 거의 없는 28,29,31일중 갑작스런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28일 하오2시: 오타와 캐나다군기지 터미날 11도착
하오2시45분: 총독관저 도착
하오6시: 전대통령주재 교민초청리셉션 (샤토·로리에호텔 또는 오타와 한국대사관저)
하오7시30분: 비공식만찬회
◉29일: 몬트리얼 근교 원호병원및 6,25 참전용사 방문
◉30일 상오10시: 전두환·트루도 정상회담(의사당)
10시30분: 한국·캐나다 양국각료회담
12시30분: 트루도수상과 오찬회(수상관저)
3시30분: 전두환·트루도 회담
6시30분: 트루도수상 초청리셉션(레스터·피어슨빌딩)
8시30분: 최후의 공식 만찬
◉31일 상오 11시: 오타와 공항 출발

파산율 40% 증가
한달간 832개 기업 파산

(오타와)82년 첫 7개월간 캐나다 기업의 파산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늘었다고 연방 소비자및 기업문제전담부가 11일 보고했다.

개인 파산율은 작년에 비해 27%가 늘었다.

금년 7개월자 파산하 기업은 총 6,275개, 개인은 16,506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는 4,472기업, 13,043 개인이 파산했었다.

금년 7월 한달중 파산한 기업수만도 832개, 개인 2,257건이다. 작년 7월중에는 527개 기업, 1,462 개인이 파산했었다.

◆토론토·블루제이스의 주자 다마소·가르시아(2루수)가 보스톤레드 삭스 글렌·호프만의 캐치를 살짝 앞질르고 2루에 세입했다. 12일밤 익시비션스태디움에서 있은 경기에서 블루제이스는 보스톤을 4:3으로 눌렀다. (관계기사 2면에)

술·담배값 또 인상
9월부터 담배 한갑 5¢씩 비싸

(오타와)술, 담배값이 또 오른다. 연방정부는 지난 6월28일 82·3회계연도 예산안 6~5% 물가인상률을 스스로 깨고 15%의 세율을 적용, 또다시 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9월1일부터 맥주 24병들이 1상자당 30센트씩, 담배 1갑에 5센트씩 오르며, 위스키, 주정등도 비슷하게 오른다.

맥주업자협회 켄·라베리씨는 연방정부가 스스로가 정한 규정을 어기면서 일반기업들에게 물가와 임금인상을 6~5%로 억제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오타와는 83년도에 맥주세로 금년도보다 4,500만달러가 늘은 5억2,600만달러로 잡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6월28일 예산안에서 82년도에는 6%, 83년도에 5%로 물가, 임금인상률을 고정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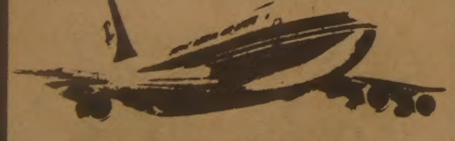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복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번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MR. 안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블루제이스 승승장구

보스턴에 3연승, 승률 5할대 육박

리그 후반들어 열을 올리는 토론토·블루제이스는 9~11일 보스톤과의 대전에서 3연승, 올스타게임 이후 18승11패를 기록, 총전적 55승58패로 승률 5할대를 향해 「매직넘버 3」(3승)를 남기고 있다.

11일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거행된 보스톤·레드삭스와의 최종3차전에서 4:3으로 승리 3연승을 거두었다.

짐·클랜시의 호투로 7회까지 2:1로 리드하던 블루제이스는 투수교체후 3명의 타자를 휘볼로 걸리우고 다시 3:2로 리드당했다.

7회말 반격에 나선 블루제이스는 레드·삭스투수진의 허술함을 틈고 런너 풀베이스를 만든후 2루수 가시아(Garcia)의 싱글히트 휘볼로 2점을 거둬 4:3으로 승리했다.

금년들어 활기를 띄우고 있는 블루제이스는 아직도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창설된지 7년만에 최고의 승률(0,487)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현재 메이저리그 전적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승	패	승률	게임차
Milwaukee	65	46	.586	—
Boston	61	51	.545	4½
Baltimore	59	52	.532	6
Detroit	57	55	.509	8½
New York	55	55	.500	9½
Cleveland	54	56	.491	10½
Toronto	55	58	.487	11
서부조				
K.C.	64	48	.571	—
California	64	48	.571	—
Chicago	60	51	.541	3½
Seattle	55	57	.491	9
Oakland	50	64	,439	15
Texas	44	67	.396	19½
Minnesota	39	74	.345	25½

내셔날리그

동부조	승	패	승률	게임차
Phila.	64	48	.571	—
St. Louis	63	49	.563	1
Pittsburgh	59	53	.527	5
Montreal	58	53	.523	5½
New York	48	63	.432	15½
Chicago	48	67	.417	17½
서부조				
Los Ang.	64	50	.561	—
Atlanta	62	50	.554	1
San Diego	60	54	.526	4
San Fran.	59	55	.523	4½
Houston	51	62	.451	12½
Cinci.	40	73	.354	23½

문선명씨 추방안해

미연방지법판결 위증혐의 청문회는 배제안해

(뉴욕지사)탈세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8개월에 2만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선명목사(62)가 10일 법정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 국외로 추방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제럴드·피펠 연방지법판사는 이날 문목사가 징역 및 벌금형에 더해 추방까지 받는다면 지나친 처벌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피펠판사는 이번 판결이 문목사가 10년전 미국에 입국할 때 위증을 한 혐의에 따라 열리게 되는 추방청문회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완성

올림픽위해 8억달러 투입

(서울11일=연합)한국은 8억2천만달러(미화·원화 6,066억원)가 소요되는 88년 올림픽및 86년 아시안게임의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이원경체육부장관이 11일 발표했다.

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체육부는 정부기관등 51개 체육관계 단체가 제안한 각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종합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라 경기통제, 설비, 환경, 개발등에 566개 사업이 시공된다.

24회 올림픽을 위해서는 5,368억원, 10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698억원이 배정됐다.

68년 올림픽을 주최했던 멕시코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 불과 1억7,500만달러를, 64년 올림픽 주최국 일본은 27억달러, 80년 올림픽의 소련은 20억달러를 소비했다.

한국의 경우, 경비의 많은 부분은 서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TV전세계 방영권, 기념주화, 복권, 올림픽마크 판매권, 올림픽기념물등을 판매한다.

두 게임을 위해 필요한 117개 시설물중 13개는 새로 건조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시설의 확장, 보수로 충당된다.

13개 시설물은 사기업체 자본으로 건축, 경기후에는 매각된다.

올림익 관광자는 35만명, 아시안게임 관광자는 15만명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무니」가 아니다"

"통일교 자금 지원받았다" 보도 항의

〈뉴욕지사〉 뉴욕한인청과상조회 회원 5백여명이 6일 데일리 뉴스 건물앞에서 「우리는 무니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상조회 사상 최대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상조회 회원들은 지난7월25일 이신문이 한인청과상들이 통일교의 자금지원을 받고있다는 보도와 관련 상오11시부터 한스·포인트시장에 모여 약10대의 트럭에 분승 데일리 뉴스 빌딩앞에 모여들었다.

트럭에도 「무니가 아니다」라는 휘장을 두른 이시위행렬은 하오1시40분까지 계속돼 마침 점심시간중 붐비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상조회원들은 영문전단을 이들에게 배부했다.

社說

한일관계의 근본적문제

최근 83년도부터 일본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역사및 사회교과서에 기술된 역사 왜곡사건이 우리 한국민족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일본교과서 16종에서 24개 항목에 걸쳐 167군데나 사실(史實)을 왜곡시킨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용어문제를 떠나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별히 신중론을 펴오던 한국정부가 뒤늦게나마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항의를 "비망록"에 실어 전달했지만 일본정부는 「문교정책상 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 지극히 소극적이고도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8월4일 동경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의 우익단체로 보이는 무리들이 스피커를 통해 「한국대사관 들으라, 일본교과서는 내정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 대사관을 점령하고, 직원을 추방하겠다」고 위협 공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교과서문제로 끝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할 성격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한, 일 양국간의 건전한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첫째로, 일본의 그릇된 한국관이다. 한국을 보는 일본인의 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일본이 한국에 관한 역사를 왜곡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빗물어진 한국관 때문이다. 그들 정신 속에는 아직도 군국주의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비록 독립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식민지로 착각하거나, 또는 식민지 사관(史觀)을 가지고 한국을 보려고 하는 편견이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53년에 한일교섭 제3차 청구권회의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가 「총독정치로 한국이 덕을 보았다」는 망언이며 74년 다나까 수상이 일본국회에서 「한국이 합병시대를 통해 김의 재배방법이나 의무교육제도를 배웠다」고 말한 사건이다.

또한 이번에 마쓰노 국토장관이 「한국이 한일합방을 침략이라고 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으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오가와 문부상이 「내정간섭」이라고 운운한 파렴치한 발언이다. 이러한 그릇된 한국관은 그들의 의식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식민지사관 때문인 것이다.

그들이 식민지 사관을 버리지 못하는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견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뚤어진 자세로 임하는한 선린의 우호관계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교과서의 왜곡사건 배후에는 그들의 되살아난 「대일본제국의 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새 교과서에서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며, 헌법개정안에서 천황제를 부활시키려는 조짐을 보여주는것은 일본에서 신제국주의의 복고사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후 「경제동물」이란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최근 군비증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역사 왜곡사건은 가면을 쓰고 있던 군국주의의 근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전환이나 가치관의 전도는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에서의 무서운 제2의 침략행위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대결해 가야할 것이다.

세째로, 이번 교과서 왜곡사건에서 일본은 섬 민족의 근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섬 민족의 근성이란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한 것이다. 약할 때는 아부하고, 강할 때는 폭군이 되는 침략성이다. 그들은 해적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독이 과거 나치의 과오를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운동가를 훌륭한 애국자로 기술하듯이 자신들의 과오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울삼으려는 용기와 너그러움이 그들에겐 없다. 그들은 용어를 바꾼다고 역사가 바꾸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시킴으로 이중적인 역사의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대비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는 일본을 욕하고 비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서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정확한 사료를 제시함으로 잘못된 일본인의 한국관을 시정해 주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우리에겐 아직도 주체적인 역사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의 교과서 자체에도 왜곡된 것이 없지 않다. 일본인들의 식민지 사관이 그대로 우리의 역사기술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 국가가 번영하려면 경제적 성장도 귀중하지만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사료비판을 통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쓰고 정리하는 과제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도 근원적으로 해보아야 할 줄 안다. 연대 암기식 방법을 탈피하지 못한 역사교육을 지양하고, 좀더 뚜렷한 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좀더 근본적으로 파헤쳐 봄으로 다시는 그러한 역사의 비극을 밟지 않도록 산 역사교육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실력배양이다. 외교는 국력이다. 국력이 약하면 자연히 국제무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마련이다. 우리가 일본과 대결해 나가며, 대등한 입장에서 국교를 수립해 가려면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의 주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무성의하며 깔보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력이 없는 까닭이다. 실력이란 국방이나 경제력만은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우리는 구걸하고 그들을 모방하는 식의 저자세를 취해왔다. 우리가 떳떳이 그들과 맞서려면 그들의 뒷꽁무니만 따라가고 흉내내는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가고, 우리 특유의 삶의 스타일을 가꾸어 가는 늠름함과 멋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실력을 기르려면 우리의 것을 바로 알아야 하지만, [illegible] 일본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일본인중에는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이들이 [illegible] 많고, 한국연구 기관도 많다는 말은 듣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illegible] 때문에 그동안 일[illegible]을 [illegible] 한다는데 대해 [illegible]는 [illegible]을 불러 일으켜 [illegible]이다. 그러나 [illegible]러한 [illegible]적인 반응만으로는 그들을 이겨낼 수 [illegible]는 것이다. 상대방을 [illegible]기려면 상대방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역사를 알려면 일본과의 상관관계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가 많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국내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정부가 장여인사건 이후 고조된 국민의 관심과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담겨진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일본교과서의 한국역사에 대한 왜곡사실에 대해 한국정부가 알게된 것은 최근이 아니고, 지난해부터라고 문교부장관이 국회질의에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좀더 일찍부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동안 우물우물했는지 궁금하다. 40억불 차관문제 때문에, 또는 친한파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련되었다는것 때문에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고 했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자율적이고도 양심적인 시정의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해 왔다는데, 외교를 담당한 한국정부의 관리가 그토록 일본을 모르고 있다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한국정부는 과거의 대일외교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이완용사건을 초래하는 역사적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철수씨재판

동양계는 "편견" 이유로 제외

(상항지사)이철수씨의 차이나타운사건을 재판중인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얼코트(로버트·도시판사)는 9일 하오 12명의 배심원선정을 마쳤다.

이 배심원은 백인-10명, 흑인-2명이며 예비배심원은 4명이다.

남녀 각6명으로 결정된 이 배심원선정자리에서 검찰측은 8명의 동양계 배심원후보를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했다.

또한 변호인측도 경찰가족등을 비롯한 8명의 배심원후보를 편견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배심원들은 10일 상오부터 이철수씨의 차이나타운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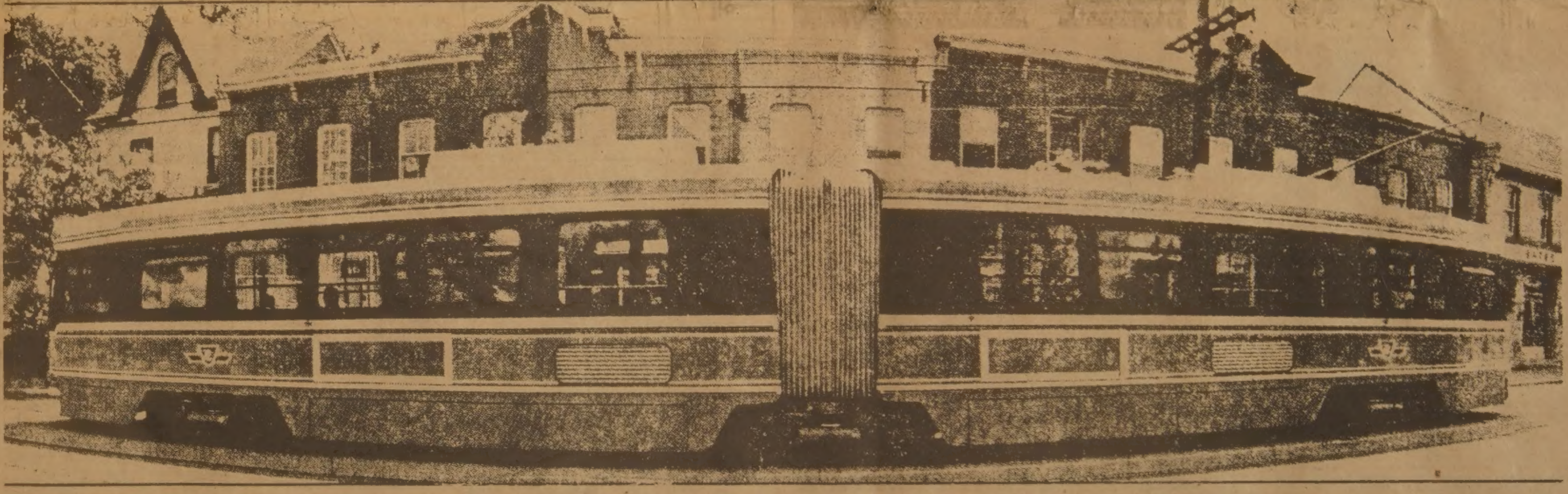
한편 이철수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가 9일 정오 이씨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항 수피리얼 법정청사앞에서 열렸다.

2백5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가한 이 시위는 이철수후원소속의 추남숙, 랑끄야마다변호사등이 5일 담당판사인 로버트·도세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것.

이날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등 대부분이 동양인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철수에게 자유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등의 피켓과 프래카드를 들고 20분간 법원주위를 돌고나서 정문계단에 참석 관계자들의 스피치를 경청했다.

이날 시위에는 특히 상항지역노인회 노인회원30여명, 산호세및 새크라멘토노인회원 50여명등의 노인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으며, LA후원회에서도 윈·신·후루타니, 패티·장(한·일계3세)등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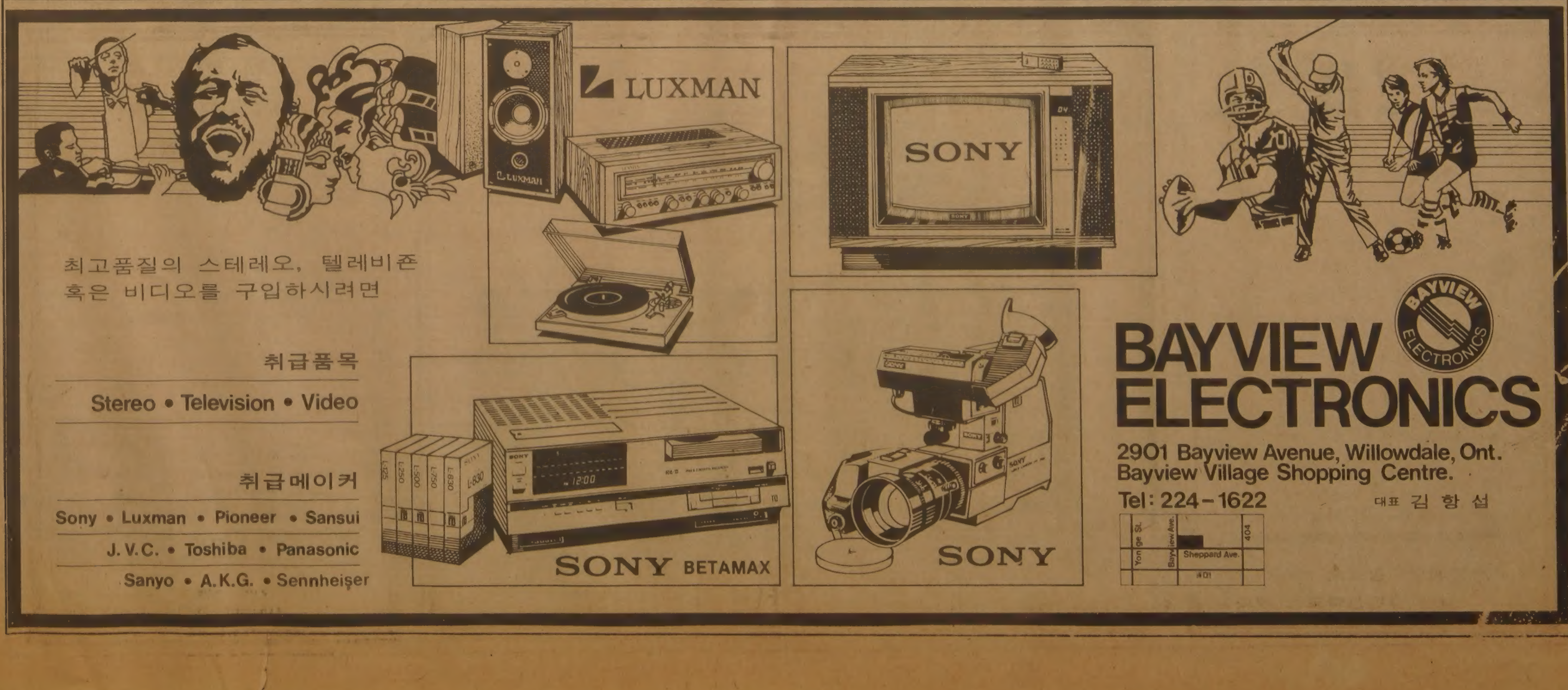
이외에도 상항인력개발원 청소년단원 25명을 비롯 상항여래사신도회 산 10여명, 근교대학의 재학중인 유학생도 참가했다.



◆지금까지의 전차 두대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로 가운데가 아코디언처럼 구부러지는 신형전차가 머지않아 토론토 남쪽 퀸스트릿에 등 장할 듯. 캐나다의 도시운수개발공사가 제조한 이 전차는 길이 75피트에, 승객 214명을 싣는다. (보통 전차는 101명이 정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4>

이 태 준(문협회원)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대우 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기중은,

"그러고 보니 제가 최선생님을 몰라뵈온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큰 결례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십도 각도의 절까지 올리며 사과를 드리는 결단을 내렸다. 신기중의 예리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은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을 품고 있던 최감투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 사정이 이러고 보니 선뜻 나서지 못했읍니다."

하고 맞 사과를 받아내는 약효를 발해냈다.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서 대화는 한결 쉽게 풀려나갔다.

"고명하신 최선생님께서 이런 가정불화를 겪으시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읍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화해를 시켜야 겠다고 마음을 굳힌 신기중변호사는 각자의 불만을 토해내서 상대방의 고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해 나갔다.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부인께서는 무슨 어려움이 계시길래 그러십니까?"

"저이는 요, 처자식이 죽어가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예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변호사님이 다 아시다시피 저이 별명이 감투왕이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최감투라고 부르겠어요?"

듣고 있던 최감투가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시는것로 알고 있는데요."

"저 양반이 배움은 있으니까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가정도 돌봐야 하지 않아요? 내가 가게를 보다가 쓰러져도 죽을려면 죽어라, 이런 심통이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허덕거리고 살아가니까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없지 않아요? 저이는 한국에서 하던 버릇을 하나도 못버리고 밥시중 물시중까지 다 받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거기다 요새는 술바람, 여자바람까지 나가지고, 이집 저집 다니며 술만 마시고, 딸같은 계집애들에게 빠져서 하루종일 감옥같은 가게안에서 일전이전씩 모아놓으면 홀랑 갖다 바치고, 속이 뒤집혀서 뒤지다시피 찾아서 끌어다 놓으면 또 그렇고, 이짓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살아요, 못살아요!"

그녀는 쉰소리로 울먹이며 말을 끝냈다.

신기중변호사는 부인에게는 비서가 갖다놓은 오렌지쥬스를 권하고, 최감투에게는 담배를 권했다. 담배에 불을 붙인 최감투는 담배를 길게 빨아 연기와 함께 한숨을 내뱉은후 자기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고 말았읍니다. 저도 한국에서 내노라하고 살았읍니다. 내 나이에 드물게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민이라고 이놈의 나라에 와보니, 도대체 사람취급을 안해요. 마누라도 그렇고, 새끼들도 그렇고, 갈수록 나를 가게일꾼으로나 생각하는 것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은 놈이 설겆이 빨래까지 하자니 참 처량해져요. 자꾸 소외된것도 같고요. 사는 재미라고는 하나도 느낄수가 없고, 죽지못해 사는 거예요. 나이는 얼마남지 않아서 자꾸 초조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얼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서 행세하고 싶기도 하고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단체에 어울리기 시작했읍니다. 가정이야 어쨌든 바쁘게 뛰어다녔읍니다. 감투도 하나씩 얻고, 사는 것 같았읍니다. 술도 한잔씩 하기 시작했읍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팁도 주어가며 허세도 부리고요. 차라리 이 여편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앙탈을 부리고, 챙피를 주고,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게 하지 않아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읍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막 퍼마시며 돈을 뿌렸읍니다."

신기중변호사는 최기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았다. 최기철부인의 고충도 참기 힘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잠시 간격을 두고 생각한 다음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갔다.

"두분이 헤어지겠다고 합의하시면 법적수속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이라는 형식자체보다는 이혼하신 후의 휴유증을 잠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애들은 애들의 의사에 따라 두분이 나누어 책임지셔야 하고, 재산은 두분의 합의하에 분배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족과 재산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계 속)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47>

殺意斷層 ⑭

오빠에게 모든 사실 털어놓고 눈물만…

두봉은 냉랭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계속 그 피둥한테 돈을 상납하겠다는 거냐? 네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돈도 없어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까지 그놈한테 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놈을 죽이고 싶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싶어요. 남편한테 자백할바에는 그놈을 죽이고 하겠어요. 이판 사판이니까.」

두봉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탁자 밑으로 누이의 구두 끝을 꽉 눌렀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럴수록 냉정히 행동해야한다. 너 그놈이 나타날때 마다 육체관계를 가졌니?」

「어쩔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꺾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바보천치 같은 것! 유부녀가 나이트 클럽엔 왜 갔니? 먹고 살만하니까 술을 바람이나 피우고 싶었던 게구나. 한심한 것 같으니! 술에 너무 취해 강제로 당했다고 하지만 그게 너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 그 말을 누가 믿겠어? 나부터도 안 믿어! 너 나를 어수룩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 모든 건 네 책임이야. 네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일어난 거야.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제비족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는 왜 갔어? 내가 너라면 이 단계에서 자살해 버리겠다.」

고개를 꺾고 있는 누이를 내려다보며 그는 사정없이 질책했다. 문자는 울면서 다소곳이 듣고만 있었다. 오빠한테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원, 이럴수가…」

그는 벌떡 일어나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자도 얼른 눈물을 훔치고 그 뒤를 따라 나갔다.

두봉은 가로수 밑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문자는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는 누이를 보지않고 말했다. 어조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나로서도 현재로서는 별로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는다. 2천만원정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좀 생각해 보다가 내일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입에서 허연 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너 행여 그 놈을 죽이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해서는 안된다. 알았어?」

문자는 어린애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내가 너같으면 자살하겠다고 그랬는데…그래서는 안돼. 만에 하나라도 절대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그녀는 끄덕였다.

「하여간 내가 그놈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는데…남자끼리 만나 이야기하면 뭔가 통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어요.」

「어떻게든 그놈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야해.」

「알아보겠어요.」

「내일 내가 전화할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더라도 나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둬. 앞으로는 나하고 수시로 연락해야 한다. 너 때문에 내가 갑자기 바빠지겠구나. 자, 가봐.」

문자는 돌아서면서 역시 오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朴 男 그림

◆오는 9월14일 로이·톰슨·홀(뉴·매시홀)에서 개장기념 대공연을 가질 캐나다가 자랑하는 팝송가수 앤·머리가 최근 획기적으로 이미지를 쇄신했다. 체육교사 출신답게 미끈한 각선미가 돋보인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37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학생모집

82학년도 제2학기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학과 : 신과
1. 자 격 : 고졸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하며 비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함.
1. 수 업 료 : $60
1.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12주간)
1.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지하철을 이용하실때는 ST.GEORGE에서 내리시면됨)
1. 개강일시 : 1982년9월11일 오전9시
1.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8월1일부터 9월4일 LEE'S PRINTING (2157A WESTON RD) 전화 : 244-2301
1. 기타문의 : 233-2266 · 244-230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직영 칼빈신학교장 계화삼

협회 창립기념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에서는 창립2주년기념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8월21일(토) 낮12시
장 소 : Pro 10Pin Bowl, 877 Wilson Ave. (Between Keel & Dufferin)
시상및 종목: 혼합전 1·2·3등
개인전 남녀 1·2·3등
개인전 핸디 1·2·3등
(A.B.C, W.I.B.C에 적용한 핸디)
하이씽글 남녀
참가비 : 개인전 3게임 $ 7.00
혼합전 각3게임 $12.00
연락처 : Mr.정 (742-2193)
Mr.장 (759-8228)

한인볼링리그 회원모집

볼링애호가들의 희소식!
금번 볼링협회에서는 82·83년도 볼링리그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9월3일~1983년5월6일까지 (34주) (매주 금요일 오후6시45분~9시까지)
장 소 : Pro 10Pin Bowl, 877 Wilson Ave.
참가범위: (1)캐나다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누구나되며 소정에 입회원서및 회비납부에 의무가 있음.
(2)12팀(4인조)48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팀구성은 차후 결정됨.
〈회원의 혜택〉
▲ A.B.C, W.I.B.C에 가입되며, 회원증을 받고 전북미지역에서 발행되는 볼링에뉴얼북에 에버리지가 기재됨.
▲ 각종대회및 회원파티에 참가함.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연락처 : 조규열 661-3124
오상균 622-0224

재캐나다 한인볼링협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416)497 8900 채 준 섭
〈R〉(416)633 7892 (David Cha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日 外務·文部省 의견對立

"한국 是正요구에 應해야" 外務省
"교과서修正 절대 못한다" 文部省

【東京10日=宋孝彬특파원】교과서歪曲기술과 그修正을 둘러싸고 일본의 文部省과 外務省은 서로 반대의주장을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서기 시작했다. 사꾸라우찌 (櫻內) 일본외상은 9일과 10일 이틀간에걸쳐 衆議院외무위에서『3·1운동은 당시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통치를 배척하기위해 일어난 명백한 한국인의 독립운동이다』고 강조, 한국과 중공의 비판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으로피력했다. 사꾸라우찌외상의 이같은 발언을 계기로 일본외무성과 수정不可를 고집하고 있는 문부성간의 대립은 표면화되기 시작, 부처간의 대립이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正誤表정정도 할수없어" 오가와

사꾸라우찌외상은이날『일본정부는 전쟁전 일본의행위에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있음을 시인해야하며 그같은인식위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공의 국내정세를 각료들에게 설명,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해 외무성이 교과서를 수정토록 문부성측에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부성의 미쓰미 (三角) 사무차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국과 중공의교과서수정요구에대해『결코 응할수 없다는 종래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긴급간부회의에는 사노 (佐野) 문화청장관을 비롯해 중공을방문중인 오자끼 (大崎) 국제기술국장을 제외한 국장급이상 간부가 참석했다.

미쓰미차관은 이자리에서『시정요구에 응하면 전후35년의 문교정책이 파괴되고만다. 문부성으로서는 교과서수정에 절대로 응할수없다』는 결의를 표명, 참석자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문부성의 결의는 총리부·외무성·자민당내일부에서『시정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점차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것에대한 문부성의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오가와 文部相은 또『일단 집필자들이 文部省의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정정한 교과서 검정내용을 또다시 정정하는것은 어울리지않는조치』라고 전제하고『검정내용은 正誤검정에의해서도 개정할수없다』고말해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을 정오정정으로 고칠수있다고 밝혔던종전의 발언을 다시 뒤집었다.

이에앞서 미야자와 (宮澤) 관방장관은 스즈끼 (鈴木) 수상이 8일 나가사끼 (長崎) 에서 교과서문제와 관련,『전쟁책임을 반성한다』고 발언한 것은『일본수상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대와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그러나 수상은 교과서수정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反應 이해못해 마쓰노 또다시妄言

【東京10日=聯】교과서문제와 관련, 妄言을 계속해온 마쓰노 (松野) 일본국토청장관은 9일『과거의 반성을 잊으라고는 말하지않으나 열강의 식민지쟁탈전이 격심했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않고 비판만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주장,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대륙침략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또다시 강변했다.

마쓰노장관은 이날 나고야에서 기자회견을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자기 나라를 나쁘다고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접국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친선을 잃게할수 없다면서『특히 한국이 왜 그처럼 신경질적으로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1운동「暴動」나쁜의미 아니다"
文部省견해 8개項 마련

【東京10日=宋孝彬특파원】일본문부성은 韓 中양국의 일본교과서검정비판에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①한반도에서의 日本語사용과 神社참배강제는 南京대학살희생자수와 마찬가지로 史料가 부족하다 ②3·1운동부분의 폭동은 나쁜의미로 사용되고있지 않다 ③강제연행 (징용) 도 처음엔 자유응모였다 ④創氏改名은 제도상 강제적인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 (朝日) 신문은 10일 韓 中양국과의 교과서분쟁과 관련, 문부성이 8항목에 걸쳐『검정이 史料에 근거한 記述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부성견해를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나 이같은 견해로는 韓 中양국의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부성의 궤변에대해 교과서집필자들은『문부성의 설명에는 奇辯이 두드러질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으며 집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일면도 엿보인다』면서 문부성당국의 멋대로의 역사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日本史」를 집필한 에구찌 아이찌 (愛知) 大學교수는 3·1운동을「폭동」으로 바꾼 경위에 대해『검정조사관이 군대와 경찰이출동하여 탄압한것은 폭동이 일어났기때문이라며 반드시 폭동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했다』고 폭로하고『문부성생각은 폭동이나쁜것이며탄압당해도 할수없다는뉘앙스였다』고말했다.

日대사관선 否認

駐韓일본대사관은 10일 하오 일본文部省이 한국에대해 5개항의 설명자료를 만들었다는 아사히 (朝日) 신문의 10일字보도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외무부에통보해왔다.

實名制 대부분 肯定的
民正黨 공청회 실시時期엔 의견 엇갈려

民正黨은 10일 중앙당사統一舘에서 6·28및 7·3경제조치에대한 공청회를갖고 8명의 각계인사들로부터 實名去來制의 실시에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高永復 (서울대교수) 金基桓 (KDI원장) 金鎭炫씨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가 6·28및 7·3조치 전반과 그실시시기에 관해, 朴昌圭 (三愛기엽사장) 卞恭壽 (한국부자금융사장) 金秉柱씨 (西江大교수) 가 實名거래제 실시와 預積金 비밀보장에 대해, 車耕權 (서울대교수) 全經九씨 (변호사) 가 종합 소득세제 개편과 法人세율조정에 관해 公述했고 이에 대해 李滋憲의원 (民正) 朴炳潤씨 (한국일보경제부장대우) 등 10여명이 질의를 했다.

實名거래제에 관해 公述人들은 이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인사는 재검토를 주장하고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公述人들은 또 금융자산소득의 전면종합과세에대해 異議를 제기, 소액예금이자및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고액예금및 배당또는 익명예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竝行실시하는등으로 금융자산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실시할것을주장했다.

공술인중 金鎭炫씨는 實名制가 한정된 테크노크래트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어 성공하기어렵고 내년7월 실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高永復교수는 實名制실시에 유예기간을 두지말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卞恭壽씨는 記名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익명이나 無記名 자산에 대해서는 重課稅, 자발적인 實名化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實效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車耕權씨는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는 86년까지 시한을정해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中共, 日정부特使를 冷待 공식접촉회피

【北京9日AP=聯】역사교과서왜곡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中共을 방문중인 2人일본대표단은 9일 中共측의 냉담한 반응속에 중요관리들과 공식접촉을 갖지못한채 사적인 예비접촉만 가졌다.

實業高校입학 추천制
農·工高 30%… 科學高는 전원

문교부는 10일 내년부터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30%를 출신중학교장추천으로 선발하고 전국의 전수학교를 정규고교로 개편하며 사립고교의 신·증설을 유도하여 고교수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야간부는 근로청소년을위한 특별학급으로 전환하고 일반고교생은 모두 주간부에 다닐수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고교평준화보완계획」을 발표했다.

문교부는 또 이날 74년이래 시행해온 고교평준화시책을 계속 추진하되 그 적용지역은 현행 서울·부산·대구·인천등 20개시지역으로 묶어 더이상 확대하지않기로했으며 그동안 검토해온 무경쟁지역의 연합고사폐지,종교계학교의 이교도 (異教徒) 학생입학기피, 선지원—후배정등의 방침은 부작용을우려하여 그 시행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 보완계획을 내년1학기중에 시험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83년9월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했다.

문교부관계자는 올들어 고교평준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평준화지역학교의 교과별·능력별 이동수업과 학습부진생의 보충수업을 의무화하여 전반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막도록 했으며 이번 보완대책은 적성이 맞는 우수한 중학졸업생들이 농·공·과학고교에 쉽게 진학, 자신의진로를 조기선택할수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것이라고 말했다.

離任 프랑스大使에 全大統領, 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베르나르·뚤렌駐韓프랑스대사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朴寶鎭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달러 계속強勢
어제 7백42원… 올最高

환율이 8월들어 달러貨의 강세로 계속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오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10일 한국은행이 고시한美貨 1달러당 매매기준은 7백42원20전으로 올들어 최고 시세를 보이고있다.

환율은 지난 연말 1달러당7백원50전에서올들어계속 오르다가 지난 7월8일 7백42원을 고비로 일단 안정세로 보였다.

이후 7백40원대에서 7백41원대를 오르내렸으나 지난 4일 7백41원20전, 5일 7백41원50전, 9일에는 7백41원90전으로 올랐으며 이날 7백42원20전으로 올들어 최고 시세를 보인것이다.

한편 이날 암달러시세는 9일보다 1백달러당 5백원이 오른 8만5천5백원에 거래됐다.

또한 일본円貨는 달러貨에 대한 약세를 반영, 계속떨어지는 추세를보여 10일 1백円당 2백83원25전으로 고시됐다. 지난 9일에는 2백84원15전이었으며 지난연말에는 3백18원96전이었다.

韓銀관계자는 對美달러 환율상승이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때문이며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것같다』고 말하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가격조건이 그만큼 불리해질것으로 보인다.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는 지난주말 미국의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 금리가 오를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졌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일자	환율
81.12.31	700·50
82. 1.30	708·30
〃 4.30	721·30
〃 6.30	740·80
〃 7.8	742·00
〃 7.9	741·60
〃 7.31	741·30
〃 8.6	741·60
〃 8.7	741·90
〃 8.10	742·20

◇對美달러 환율 변동추이 〈1달러당·원〉

鳳凰大旗 고교야구
오늘부터 16強격돌

◇3회전對陣表

일시	①	③
11일 3시	世光高	獎忠高
11일 6시	東山高	清州高
12일 3시	馬山商	大田高
12일 6시	馬山高	群山商
13일 3시	釜山高	城南高
13일 6시	慶北高	光州一高
14일 12시반	培明高	大邱高
14일 3시	在日同胞	北一高

①③은 덕아웃 표시

熊女도 "아이 더워"

◇熊女의 피서。동물원의 곰도 30도를 웃도는 暴炎을 참지못해 사육사가 던져준 얼음덩이에 매달려 더위를 식히고있다 【서울昌慶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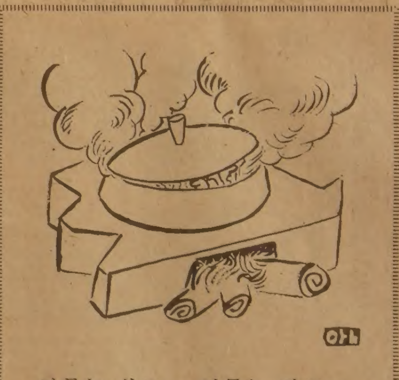
南北韓 교차承認 셰송佛外相 촉구

【파리 9日 AP AFP=聯】클로드·셰송 프랑스외상은 9일 서방국가들이 北傀를 승인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중공·홍콩·인도를 10일간 순방하고 귀국한 셰송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訪韓중 한국정부 지도자들에게 프랑스정부가 한반도의 재통일을 가능케할수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밝히고 서방국가들과 사회주의진영의 南北韓교차승인을 통해 남북한의 고립현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하루는 삶고… 하루는 찌고…

地平線

『흰 깃털 부채를부치기도 귀찮아/푸른 숲속에 들어가 벌거숭이 되어/망건일랑 벗어 돌 벽에 걸고/머리에 솔바람을 쐬네』—중국의 시인 李白에게 여름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蘇東坡도 여름은 행복한 계절이었다.『사람들은 모두 더위에 괴로와하는데/나는 여름해가 긴 것을 좋아하노라』—그때는 아마도 사람을 감싸는 자연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사람의 체온에 육박하는 무더위는 누구보다도 서민들에게 고통을주게 마련이다.『집은 좁고 낮아 바람 한점 아니 오고/달고다는 돌담 그대로 우리노니/오늘도 기나긴 해를 어이하여 보내리』—가람 李秉岐는 이렇게 읊고있다.『옷을풀어치고 일어서 거닐다가/등을 드러내고 오똑이 앉아도보니/흐리고 터분한 머리 무겁기만 하여라』▼6·25전쟁을 이땅에서치른 미군들은 대개 한반도의 살인적인 추위를 기억하고있다. 시베리아에서 찬 바람이 몰아치는 한반도의 겨울은 같은 위도의 유럽이나 미국동해안보다 혹독하게 추운 것이다. 그러나 이땅의 여름은 이글거리는 태평양의 더운 바람이 휘몰아치는만큼 아열대기후로 돌변한다. 대륙의 동쪽에 매달려있는 한반도의 특성때문이다. ▼열대지방의 논에서 자라던 벼농사를 우리가 짓게된것도 여름철의 기온이 아열대와 같기때문이다. 벼가 한창 자랄 때에는 평균기온이 섭씨23도를 내려가지말아야한다. 게다가 한햇동안 1천2백mm가량의 비가 있어야한다. 이것도 한햇동안 내리는 강수량의 3분의 2가 4월에서 9월사이에 퍼붓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 ▼한반도의 기후가 흔히 온화한 온대지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쪽을 빼고, 한반도는 한대에 속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여름철에 찌는 더위와 억수같은 비를 점지받아 벼농사를 지어 먹고있다. 여름이야말로 하늘이 이민족에 내려준 은총이요, 몇천년동안 먹여 살린 밥줄이었다. ▼살을 찌르는 겨울 바람은 우리에게 여름에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고 가르쳤고, 여름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왔다. 가람 李秉岐의 여름이 땀내나는 더위를 빗 웃어넘기는 유머로 가득 찬 것은 이런 자연의 은총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손에 호미 잡고 밭에 풀을 매어보라/내려쬐는 볕볕 피를 또한 어떠하리/도리어 일없는 이몸 부끄러움이어라』—다같이 땀을 흘리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인 사 말 씀
—캐나다한인총연합부인회를 결성하고—

지난 4월10일, 이곳 한인 이민역사 20년만에 숙원이던 교포부인회가 창립되었음은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삼년전부터 부인회의 필요성과 사명감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분이 이마를 맞대고 의견과 정성을 모아 부인회 창립준비를 해왔읍니다.

모국시절과는 달리, 이민현지에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직업전선에서 땀 흘리며 뛰어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살림, 자녀양육등 주부로서의 본분도 다 해야 하며, 부녀자들의 복지향상·권익보호·상호친목 유대증진등 산더미같이 쌓인 과업을 효과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굳게 뭉쳐,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여성단체의 탄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그 창립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한인총연합부인회」의 깃발을 내걸고 힘차게 첫발을 내디딘 우리 부인회는 15개조의 회칙을 마련했는데, 창립목적을 회칙에 밝혔읍니다.

[illegible] 첫째로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꾀하고, 이민생활의 여러 [illegible] 해결하며, 이곳 교민복지·여성지위 향상, 대외적 사회봉사, [illegible] 보존, 자녀양육문제 해결, 타민족과의 친선및 문화교류등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유능하고 훌륭하신 자문위원도 모시고, 임원진도 확정하여, 우리 부인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과 행사를 알차게 실행에 옮겨 이 나라, 이 사회및 한인사회에 성심성의껏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문제 상담실과 결혼상담실을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9월에 자선바자를 열고, 10월에는 자녀교육문제 세미나를 개최하며, 양로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소외감을 안고 지내는 교포노인들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위문품과 어린이들의 노래를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연말에는 회원친목 파티도 열고, 회원을 위한 꽃꽂이, 고전무용 강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처럼 드높은 사명감과 의욕찬 포부를 안고 출범한 우리 부인회를 여러분, 뜨거운 성원과 사랑의 격려로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 8월1일

캐나다한인연합부인회
회장 양혜신 · 임원 일 동

캐나다한인총연합부인회

◆자문위원
김문량 · 황대연 · 유회자 · 박영숙 · 전택균 · 배형도
이신복 · 박옥선 · 강신봉 · 강찬영 · 김인자 · 박구현

◆임원진
회장 : 양혜신, 부회장 : 오정숙, 총무 : 박경자
조직부장 : 이상온, 차장 : 윤명자 · 김청자
교육부장 : 김혜숙, 차장 : 조정자
사회봉사부장 : 박옥남, 차장 : 전오기
섭외부장 : 이칠영, 차장 : 정승원 · 액탈수
홍보부장 : 장순옥, 차장 : 김경희
예능부장 : 이금복, 차장 : 김용순
여성상담 : 김옥자
결혼상담 : 이응옥

연락처 : 494—1856(양혜신)
755—9288(오정숙)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 5 >

皇軍 능가하는 自衛隊

軍需공장 대형화…火力 10배로

◇陸上자위대의 전투훈련。육상자위대는 사병이 하사관훈련을, 하사관은 장교훈련을 받기 때문에 유사시 병력을 수십배를 증원해도 지휘계통에 혼란이 없다고 한다。

新鋭팬텀機 100여臺 보유

도오조·히데끼(東條英機)는 2차대전초기 수상 육군대신 참모총장등 3개 주요 포스트를 한손에 쥐었던 육군의 보스로 일본의 항복을 끝까지 반대하다 48년 사형당한 A급戰犯이다.

45년 9월 그는「美英국민에게」「일본국민에게」「모든 젊은이에게」보내는 3통의 유서를 쓴후 자기집에서 권총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상당시간이 흐른후 공개된 3통의 유서중「일본국민에게」고한듯으로된 내용은「일본은 힘이 모자라 졌다. 그러나 조국은 불멸이란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일본은 앞으로 다시 일어설것이다」라고 되어있다.

그의 예언대로 일본은다시 일어섰다. 먼저 경제적으로 일어선후 그경제력이 다시 군사력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가 한국전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듯이 일본의 군사력또한 한국전을 계기로 성장했다.

50년 북괴군이 남침하자 미국은 태평양전략상 이를 막아야했으며 本土에서는 거리가 멀어 駐日美軍을투입할수밖에 없었다. 일본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일본국내치안을 일본인손에 넘기기로 하고 당시 요시다(吉田茂)수상에게 7만5천명의 국가경찰 예비대를 창설케했다. 52년 해상경비대 8천명을 통합하여「보안대」라고 개칭한 후 54년 항공부대를 창설하면서「自衛隊」란 이름을 굳혔다.

현재의 병력은 육상이 15만5천명 해상이 4만1천명, 항공이 4만4천명으로 모두 24만명이다. 대원의 반수가 하사관급 이상의 간부들이며 일반대원은 하사관훈련을, 하사관들은 장교훈련을 받기때문에 유사시 법적인 뒷받침만 있으면 지휘계통의 혼란없이 병력배가는간단히해결된다.

『舊일본군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皇國군대이지만 자위대는 국민의재난을 막아주는 救難부대이자 守備隊』라고 자위대의 한 간부가 말한적이있지만 자위대의 전력이 일본군대최강시의 화력을 능가한것은 오래전이다.

71년 3차防(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이 끝났을때 육상자위대는 舊帝國군의, 또 해상자위대는 舊연합함대에 못지않은 戰力을 갖게됐다는것이 일본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병력숫자면에선 크게 뒤지지만 사단전력면에서 육상자위대는 火力, 화력의 밀도와 효력, 기동력에서 5~10배가까이 강하기 때문에 육상자위대의 13개사단은 최소한 舊육군의 60~70개사단에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셈이되며 그후에 개발된 74식전차를비롯 각종신형병기를 염두에 둔다면 과거와현재의 전력비교는 어리석은짓이라는 것이다.

또 레이다 조준장치에의해 명중률 90%이상을 가진 오늘날의 3천톤급 호위함이 조준사격에 의한 명중률 10%이하에 불과했던연합함대 1만톤급 중순양함과 싸우더라도 이기게마련이며 10년전 항공자위대의 주력전투기였던 F104J는 2차대전당시 세계를 놀라게했던 제로센(零戰) 20기의 위력을 가진것으로 평가되고있다.

2차전을 일으킬때 제로센은 5백30여기 였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F104J 26기의 능력에 불과한것이다. 항공자위대는 72년에 벌써F104J를 고물로취급, 지원전투기 신분으로 격하시킨후 F4E팬텀을 주력전투기로 삼아 1백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최신예 F15이글로 대체하려하고있다.

창설초기만해도「세금도둑놈」이라고까지 불려지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받아온 자위대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존재를 인정받아 최근 총리부의 여론조사에서는 82%가 자위대의 필요성을 느끼는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간부들은 아직도 출근시 私服을 착용하고 營內에 들어가서 군복으로 갈아입지만 방위대학 1기 졸업생에서 금년에 스타(將補)가 나온다고하니 자위대원들의 사기도 점차 올라갈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戰後스스로 선택한 군사小國의 노선때문에 경제大國이 될수 있었으며 일본이 재기할수있는 계기는 한국전때문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철거를 기다리던 日군수공장들이 재가동됐고 미군용의 特需붐에 힘을 입어 경기가 되살아났다. 이어 60년대는 越南戰을계기로 또 한차례 호황을 누렸으며 미쓰비시 (三菱)중공업을 비롯한 방위산업체제가급성장하기에이르렀다.

「미쓰비시의 생산능력은 일본의 전쟁능력」이란 말이 나돌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방위산업의 대명사로 불려지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은 전투기 잠수함 전차등 陸海空의 모든 전쟁무기를 생산하고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호위구축함 잠수함 탱크 對空미사일 空對艦미사일 對潛로키트 어뢰 군용통신기등이며 그밖에 인공위성발사로키트까지 제조하고 있다.

과거 야마도 (大和)무사시 (武藏)등 세계최대의 전함과 零戰전투기를생산, 軍國주의 일본의흥망과 기업의 성쇠를 같이해온 미쓰비시重工은 지금도 일본재군비의 선봉임을 부인치않고있다.

『우리는 국가와 함께 있고 국가와함께 번창했으며 국가에 공헌할수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고당당히 내세울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 국방요청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社外秘자료가 심심치않게 社內에 나돈다고 한다.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가와사끼 (川崎)중공업, 이시가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중공업, 도시바 (東芝) 電氣, 닛산 (日產) 자동차등에서도 각종 군수물자를 생산하고있으며 이러한 병기는 자위대에 납품하고 남는 분은 해외로 흘러나가는것으로 전해진다. 自衛隊의 성장, 軍備공장들의 大型化등 이같은 일본의 新軍國主義움직임은 바로 오늘의 교과서 왜곡문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초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는「일본은 무기 수출국」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본엔 무기수출 3원칙이란게 있어 ▲공산권 ▲유엔이 지정한 禁輸國 ▲분쟁당사국이나 분쟁위협국에 대해선 무기판매를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병기의 유출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는측과 파는측만이 알고 넘어가는게 다반사다.

일본은 금수 대상인 북한에까지 해상레이다,어군탐지기 각종 전자기기 워키토키 잠수복등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GNP 對比 1%미만으로서 자유진영국가들로부터 安保無賃승차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미국의 核우산아래 경제건설에만 주력, 자유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이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방위비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韓美日3국은『한반도의 안전은 일본의 평화와 밀접한 관계에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GNP의 6%,세출예산의 36%를국방비로지출, 과중한 방위부담을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東北亞의 방파제역할을 하고있는우리나라에간접적인지원마저 기피하고있다.

만약 한반도가 赤化될경우 일본은 소련에 대비, 北海道에 배치한 육상자위대병력의 상당수를 규우슈(九州)와 동해(일본해)연안으로 분산배치하거나 아니면 자위대병력을 증강시켜야할 처지이다. 그럴경우 일본의 방위비지출은현재보다 몇십배 증액치않을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역안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經協요구에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東南亞일대가 자신의 세력권에 있다는 지난날의 帝國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세계평화에 공헌할수 있도록 자유국가의 한멤버로서 상호협력자세로 나와야 할것이다.

【李在武기자】

我田引水의「억지」

「교과서歪曲」… 日 文部省 구차한 변명

「進出」·「暴動」"客觀的 표현"운운 侵略史 반성 없이 合理化 급급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 일본 문부성은 침략전쟁에대한 반성은 추호도없이 일제식민사를 합리화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

10일 밝혀진 문부성의 교교 교과서 검정내용에의하면『3·1독립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한것은 나쁜뜻이 아니며 대륙과 한반도의 침략을 진입으로 고친것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오가와 문부상은 이같은문부성의 강경론을배경으로 10일 衆議院문교위원회에서『교과서 검정 내용을 한국과 중공에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일·중공 우호에 손상이가지않는 검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말하면서 재수정할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문부성과는 달리 사꾸라우찌외상은 9일과 10일 이틀동안에 걸쳐 중의원외무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한국과 중공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요청을 문부성에 거듭 요청할뜻을 재천명, 일본정부부처간의 불협화음을 나타냈다.

문부성이 고교용 역사 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史料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침략전쟁에 관한 표현을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대륙침략과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한 표현을 쓰도록한 것은 중대문제로 부각됐다.

文部省당국자는 3·1독립운동이 역사상 부정할수없는 민족자결의 숭고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대규모의 소요였다』고 규정, 폭동으로 표현함으로써 헌병과 경찰의 탄압이 불가피한것처럼 기술하도록 종용했다. 南京대학살사건도 전투원과 비전투원간의 구별이 되지 않는 혼란속에서 일어난것처럼 기술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한국의 3·1독립운동과 같이 소요로 처리하려했다.

『이렇듯 문부성은 과거일본의 침략사를 합리화한다는 선에서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의 저항을 폭동과 소요로 처리하는것은역사의 왜곡』이라고 하타다(旗田)조선역사학회회장은 지적했다.

문부성의 검정내용에 대한 해명을 일관해서 皇國史觀에 입각한 일본제국주의의 합리화에 그 맥을 같이하고있다.

3·1독립운동문제에 관해 문부성은『다른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을 조선독립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으로 규정기술하고 있으며 다만폭동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군대와 경찰이 출동한사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와관련지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이 진압했다는 표현으로 기술했고 나쁜 의미로 쓴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부성은 또한 이 폭동이라는 용어가 필자와 출판사간에 자율적으로 사용된것이라고그책임을민간에돌렸다.

그러나 필자인 에구찌(江口·愛知大學)교수는『폭동이란 용어는 문부성이 작년 가을 고교용 日本史를 검정할때, 검정조사관이 군대와 경찰이 출동탄압한것은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 수정할것을 요구하여 폭동이란 용어를 사용케됐다』고반론했다.

에구찌교수는『폭동이란용어가 나쁜의미가아니라고문부성이 해명하고있으나 분명히 이것은 나쁜 의미가 들어있는 주관적인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創氏改名과 일본어의 강제사용 신사참배등에관해 일본 문부성은『장려하는데 그쳤고 강제했다는 史料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여기에대해서도 에구찌교수는『역사를 형식 논리에서 보면는 과오로서 강제징용과 신사참배의 강제성은 역사적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문부성이 강제징용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여 차별검정을 했다는 점이다.

문부성의 견해는『당시의 한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한국인 노동자의 일본징용은 합법적인 절차에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공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중의 한국인 노동자 징용은 39년에서 42년까지를 자유의사에따라 일본에 들어왔고 42년부터 44년까지는官의 알선으로, 44년이후는 국민징용令이 적용되어 일본으로 끌려왔기때문에 일괄적으로 강제연행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문부성의 주장이다.

그러나 하다다회장은『총검의 위협으로 이루어진 을사보호조약이나 한일합방이 불법적인것으로 원칙적인 무효라는점에서 한반도의 식민정책이 합법적이라는 교과서의 기록은 역사의 오류』라고반박했다.

문부성이 대륙의 침략을이렇듯 합리화하고 3·1독립운동을 부인하는 검정교과서를 만들게된 원인은일제침략사에대한 역사적인식이 바로서지못한데서부터출발했다.

日 文部省견해 8개項 要旨

아사히(朝日)신문이 지적한 일본 文部省 견해 8항목 가운데 한국에 관한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3·1운동 (집회, 데모에「폭동」을 추가)

3·1운동이 한국의독립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은 검정이 끝난 많은 교과서에 기술돼있다. 검정결과 폭동이라는 표현이들어간 교과서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독립운동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일부 교과서에 왜 군대가 출동했느냐하는 문제를 명백히 설명하지않은것이있어 대규모 소요사건이있었음을 표현하도록 요구한데대해 집필자가 폭동이라는 용어를 쓴것도 있으나 결코 나쁜 의미로 써어져 있지는 않다.

▲강제연행 (「강제」를삭제)

당시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의 일본移入에 대해서도 형식상 합법적 절차를 밟았으므로 중국인과 구별없이 취급하는것은 온당치 않다. 戰時중 한국인 노동자의 일본이입은 39~42년사이에는 자유모집, 42~44년사이에는 官알선이었으며 44년이후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創氏改名 (「강제」를 삭제)

법령상 강제가 아니라 임의 계출을 원칙으로 했으며 6개월간에 약80%의 계출이 있었기때문에 꽤 무리가 있었던것은 확실하나 20%가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법령상의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씨계명을 강제했다는 기술에대해서는 이같은 사정으로 인한 배려를 요구했다.

▲일본어사용 (「의무적」을「공용어」로 강요)

한국어 취급에 대해서는 한일합방당초는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했고 1938년 이후 선택과목으로함과 동시에 교수용어는 일본어로 했다. 그리고 이무렵에는 학교에따라 한국어사용금지가 있었던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느정도의 폭으로 행해졌는지는 명확치 않다. 문제된 현대사회의 교과서에『한일합방후 한국의 상황을 개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자의 사용이 금지됐다』라는 등의 기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史料的으로 정확성이 없는 점이 많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있기때문에 이같이 개괄하는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의견을 붙였다.

▲神社참배 (「강제」를「장려」로 강요)

한일합방당초에는 神社의 수 자체가 극히 적었다. 1937년이후 신사의 설치가 촉진되고부터 일본본토와같이 사실상 참배가 강요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합방후의 한국의 상황을 개괄하는 대목에서『신사참배가 강제됐다』는등의 기술은 史料的으로 시기의 정확성이없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확실한 史料에 기초를 둔사실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의견을 붙였던것이다.

메아리

罪값

「걸리버旅行記」의 작가,조너던·스위프트(1667∼1745)는 걸리버의 입을 빌어 세상을 풍자하고 있다. 「旅行記」의 진짜 줄거리는 걸리버의 모험담이기보다 그의 文明批評이다.

걸리버가 처음 漂着한 小人國 릴리푸트 見聞중에 이런 것이 있다.

『그들은 詐欺를 도둑보다 重犯으로 여겨, 죽음으로 벌하지 않는 일이 별로 없다』

도둑은 경계심으로 막을 수가 있으나, 사기는 그렇지가 못하다. 사기를 엄벌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악한자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李哲熙·張玲子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세상을 정직하게 산다고 자부해 온 사람일수록 그랬을 것이다.

부부에게 내려진 法定最高刑의 1심 판결은 그래서 수긍이 간다. 求刑과 꼭 같은 宣告刑量은 많은 사람들의 분한마음을 어느정도 풀어준다.

부부에 대한 宣告刑量은 가장 重刑인 외환관리법 위반의 징역10년에다가, 여기 競合된 사기죄 10년의 半을 얹은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각15년씩, 부부를 합친 징역 30년을 그들의 죄값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판결문에서, 부부가 사취한것으로 인정된 어음은 1천6백84억원 어치다. 이만한 돈을 부부의 징역살이로 갚는 셈이니까, 한해 약56억원, 한달4억6천만원, 하루 1천5백만원꼴이나 된다. 아무리 손이큰 부부라지만, 『벌이』치고는 엄청난『벌이』다.

같은 판결로, 張피고인의 전남편은 50만원의 벌금刑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만일 그가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하루 2천원씩을 쳐서 2백50일동안 옥살이를 해야한다는 것이 판결내용이다. 억울한 죄인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은 이보다 후하긴 하지만, 옥살이 하루에 5∼8천원을 쳐줄뿐이다. 李·張부부의 옥살이와 견주면, 하늘과 땅이다.

이런 숫자풀이는, 사실 刑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으로서는 별의미가 없다. 그것은 사건의 엄청난 규모, 심각한 餘毒에 놀란 뒤끝의 푸념같다.

분명 우리나라는 릴리푸트가 아니다. 외국처럼 1백년징역을 살리고, 1천년징역을 선고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다. 法定最高刑이 15년이면, 그 것으로 社會正義는 일단 충족된다.

법이 혹독하기로는 古代 아테네의 立法家 드라콘의 법만한 것이 없다. 사소한 범죄에까지 사형을 규정하여,「먹물대신 피로 썼다」고 이르던 법이다.

그러나 드라콘의 법은 거의 모든 죄를 한가지 사형으로 다스리는 모순을지닌다. 그런 의문에 대답한 그 스스로의 말이 전해 온다. ―小罪에 사형은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大罪에도 사형이상의 형벌이 없음을 어쩌랴.

李·張사건의 판결을 보는 심정은 그와 같다고나 할까.

형벌이 應報와 報復을 위한 것인지, 矯正과 豫防을 위한 것인지를 딱 갈라놓기는 어렵다. 그러나「형벌은 형벌없기를 기약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理想일 뿐이다.

그렇기에, 드라콘과 같은 아테네 사람 플라톤의 말은 지금에도 타당하다.

『법은, 훌륭한 弓手처럼, 바른 형벌의 방법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합당한 형벌을 겨냥해야 한다』

죄와 벌은, 법으로 합당하게 정하고, 합당한 법절차를 따라 심판한다. 法外의 것은 무엇이든 배제된다. 이 테두리를 충실하게 지켜 正義를 실현하는 것이 法治主義다. 그것은 반드시 刑量의 다과에 달린 것은 아니다.

金昌悅
<編輯委員>

海外토픽

"85년6월 3次戰"

★바티칸放送, 報告書인용

오는 1985년6월15일에 제3차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며 지구는 쥐들이 지배하는 황무지로 변모할것이라고 바티칸방송이 9일 한 과학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과학보고서는 스톡홀름 과학원을 위해 유럽및 미국 과학자들이 준비한것으로 일본의 나가사끼(長崎)原爆投下37주년을 기념하는보고서라고 바티칸방송은 말했다.

이방송은 이보고서가 오는 85년6월15일에 제3차세계대전이 발발할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우고있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제3차세계대전이 북반구에 국한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전쟁이 발발한지 24시간도 채안돼 미·소 양초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으로 인해 75만명이사망하고 3억5천만명이 중상을 입게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고 이방송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일단 放射能에 노출된 生存者들은 전염병에대한 저항력이 급격히떨어지며 다섯명중 1명꼴은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족들을 비롯한 타인들을 도울수 없게될것』이라고 말하면서『생존자들의 7~20%는 수주이내에 사망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제3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 파괴된 잔해들로 이루어지는 어두운구름층이 수개월동안 陽光을차단하게 될것이며 남반구에서조차 농사를 망치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그렇게되면 쥐들만이 방사능에 오염되지않고 급속도로 번식, 황무지로 변해버린 지구를지배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티칸시티=UPI】

◇83년 비키니패션 英國의 모델 토니양이 벨리노의 83년도 봄여름 패션의상중 꽃무늬가 새겨진 비키니를입고 포즈를 취하고있다. 【東京10日AP=聯合】

상아에 千字새겨

★현미경으로 판독가능

최근 중공고위관리가 蔣經國자유중국총통에게 보낸 장문의 평화통일촉구서한을 한 중공미술가가 작은 상아조각에 새겼다고해서 화제.

우아한 한자체의 이조각품은 가로1㎝ 세로 3㎝의 상아조각에 무려 1천여자를새겨넣은 것이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볼수있는 정도. 【北京=AP】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광복절 특별쇼

★출 연 : 배삼룡 · 배 성 · 김하정 · 김미리자
★일 시 : 8월12 · 13 · 14 · 15일(목,금,토,일) 밤

배 성

배삼룡

○최고코메디안 : 배삼룡
○저음유명가수 : 배 성(힛트곡 "망향")
○정상급 가수 : 김하정(힛트곡 "야생마")
○신인유망가수 : 김미리자

김하정

(쇼기간중 부득이 테이블 Charge 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한국일보

특집판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늙은이」되기전에 妙策을 찾아라

세계가 함께 고민 老人문제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가고있다。 노인에게는 의식주와 질병문제의 해결이외에도 여가를 활용할수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

◇올해 1백3세인 서독의 크리스티안·바우어할아버지는 패션·모델로 노후의 보람을 찾고있다。 바우어할아버지는 『동료노인들에게 변화를 주고싶다』고 기염을 토한다。

요즘 오스트리아의수도 빈에서 유엔이 주최하는 제1회 세계노인문제회의가 열리고있다. 지난26일 개막돼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이 회의에는 세계 1백개국및 민간단체대표 1백20명이 참석, 오늘의 노인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의 10대들이 60세를 넘게되는 2030년대의 노인대책까지 광범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회의 개막과 동시에 공개된 유엔의 노인문제보고서는 21세기가「노인의 시대」가 될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유엔보고서는 현재의 10대들이 60세를 넘는 2천25년에 60세이상 노인인구가 세계인구의 13.7%인 11억2천2백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75년현재의 노인인구 3억5천만명의 3배를 넘는 것이다. 이같은 노인인구의 숫적팽창은 오늘날 이미 선진공업국에서 세력을 확장해가는「그레이·파워」가 사회압력단체로서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유엔보고서는 2025년의 노인인구 가운데 4분의3이 제3세계국가에 살것으로예측했다.

제3세계의 노인문제는 현재 이들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특히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굳이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출산율의 감소, 의료혜택의 확대에 따른 인간수명의 연장등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인 인간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지금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能力위주의 人間觀과 物量위주의 경제관념이 빚어낸 인류의 질병이다.

百개國·團體대표들이 빈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인이 젊은이의 힘을 당할수없다는것은 생리학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률의 문제로 인식된다.

42년 영국에서 노령복지연금제정에 앞장섰던 윌리엄·베버리지卿은「오늘의 사회발전은 지금의 노인들이 과거 땀흘려 일한 결과」라고갈파했다.

또 지난78년 미국에서 공무원의 정년철폐와 민간근로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것을 골자로한 정년퇴직법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됐을때 발의자인 80고령의 G·페퍼의원은『현재 미국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이 2천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5년 뒤면 이연령층에 속할인구가 1천만명이다. 이들이 이 법안의 귀추를 지켜보고있다』고 말해 반대의원들을침묵시켰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노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노인연금등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발달돼 있다해도 노인에 대한 인간관이 바뀌지않는한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다.

또 오늘의 우리가 바로 내일의 노인이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일깨워주어도 이것을 실감있게 선뜻 받아들이려하지않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노인문제에 관한한 과거나 장래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어느만큼 점이되는가라는 타산적인 현실의 자(尺)로 문제를 재기에 급급해왔다.

노인은 늙었다는 이유하나로 무능력하며 그것은 경쟁원리를 바탕으로한 능력및 物量사회에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될 뿐이었다.

노인이 되기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려깊은 분별력, 신중성 또 일반적인 보수성향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배척되기까지했다. 급격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곳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렇다할 노인복지정책을 펼 겨를도 없이 物量성장만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제3세계의 노인문제는 그래서 더욱 큰문제인 것이다. 사회발전을 計量的차원에서 따질때 노인은 거추장스런 존재일수밖에없다. 직장을 예로들면 노인사원은 인사침체의 원인이고 능력개발을 저해하며 그결과 기업의 이윤추구목적과 대립되기 십상인 것이다.「쓰다버리는」고용제도,「젊은늙은이」를 量産하는 정년제도가 거기서 연유된다.

선진국의 노인복지제도가 아무리완벽하다해도 제도만으로 노후의 행복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진 못하다. 빈곤과 질병 소외 고독등 노인의四苦가운데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상당히 달성됐지만 소외와 고독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核가족화, 가족해체현상이 덜 진행된 제3세계의 노인들이 소외와 고독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선진국 노인보다 나은 형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在家老人」정책을 펴고있다. 그러나 이는노인을 가족과함께 살도록 한다는 뜻이아니다.

주택보장제도를 통해 노인들에게공영주택을 제공하거나 개인소유주택에 改修費를 보조하며 주택수당을 지급하는것등이다. 쉽게말해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양로원 제도라할수있다.

◇세계 老齡者의 지역별 인구분포 (단위：백만명, ( ) 안은%)

지역 / 연령구분	전세계총계 1970	전세계총계 2000	선진지역 1970	선진지역 2000	후진지역 1970	후진지역 2000
세계 전체 인구	3,610(100)	6,254(100)	1,084(30·0)	1,360(21·8)	2,526(70·0)	4,894(78·2)
60세 이상	304(100)	581(100)	153(50·4)	233(40·3)	156(49·6)	347(59·7)
80세 이상	26(100)	57(100)	16(61·1)	31(54·2)	10(38·9)	26(45·8)
60세이상 인구중 80세이상인구비율	(8·6)	(9·9)	(10·5)	(13·3)	(6·8)	(7·6)

※76년도 유엔사무국경제사회문제과 자료

◇국별 노후생활비 염출방법 (단위：%)

	한국	태국	일본	영국	미국
젊어서 저축해야 한다	40·3	24·7	55·0	44·2	60·7
자식이 대주어야 한다	49·4	61·4	18·8	2 이하	2 이하
사회보장에 의하여야 한다	8·2	10·6	21·8	47·1	29·1

◇국별 노인의 동거형태 (단위：%)

	한국	일본	태국	프랑스	미국	영국
기혼아들	54·7	41·0	25·3	3·5	0·9	0·5
기혼딸	4·5	9·2	37·8	5·6	2·5	1·9
미혼자녀	31·5	18·7	33·0	10·6	9·0	5·1
단독생활	4·3	5·7	4·7	30·2	41·3	41·6

갈수록 老齡化…21세기는「老人滿員 시대」
빈곤·질병 해소된다해도 소외감 더 深化
先進國선「在家老人」움직임… 사회참여통한 정신적삶 보장을

이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양로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을 운영하는것보다 비용이 덜먹힌다는 打算이 도사리고있다.

노인문제를 世代간의 계약관계로인식하고 있는 선진국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 부모를 포함한 노인세대에대해 국가가 대신해서 보호책임을 지는것으로 넘겨버린다.

그러나 高福祉는 高負擔을 수반함으로해서 일부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비가 국민소득의 20~30%에 이르고 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對국민소득비율도 40%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 모두가 노인만을 위해서 지급되는것은 아니지만 수혜자의 대다수가 노인인것은 어쩔수없는 현상이다.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노동세대들은 소득의 많은 몫이 비노동세대를 위해 떨려나간다고 불만이다.

복지예산은 그성격의 특수성때문에 일단 확장된 규모를 축소하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조차재원염출에서 한계에 부닥친 나머지 복지예산을 삭감하고있는 형편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에서 그러했듯이 빠른 템포의 가족해체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세대까지는 부모를 모시지만 우리가 늙어서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젊은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방치되고 심화되는한 선진국이 겪고있는 노인문제의 딜레머는 21세기에가서 지금의開途國들에의해 되풀이될것이라고 노인문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인간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기위해서는 물질적인 안정외에도 거주환경의 개선, 지역사회와의 융화,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등을통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보람된 삶을 누려야한다.

사실 노인문제는 프랑스에서 전개된바있는「선채로 죽는노인 만들기」캠페인을 예로들지않더라도 일할수있을때까지 일을 할수있도록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출산율의 감소로 신규노동인력이상대적으로 감소될경우 노인의 노동시장참여는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될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같은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단순노동분야에 있어서는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단체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의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60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20%, 전체유권자의30~35%선에 이르게된다. 노인들이 뭉치면 정권의 향방조차 결정할수있게된다. 21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이 존경받고 인간답게 살수있는 시대가 될것이고 바로지금의 우리들 스스로에의해 그터전이 마련돼야한다.

【林鍾乾기자】

한국老人은 할일이없다

65세이상 4%에 停年「젊은 늙은이」도
잔일할수있는 女子보다 男子가 막연
「도움」보다 적성에 맞는「역할」알선을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전체인구중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3·9%인데비해 日本은 8·6%, 미국 10·7%, 영국14·2%, 그리고 스웨덴이 15·1%이다. 이들 선진국 노인정책의 특징은 성장한 자녀들이 노인을「모신다」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희박하고, 노인들의 노후가 연금제도나 공적부조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도 최근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의료보장제도등의 확대에 따라 오는 2천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6·3%를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停年퇴직연령이 55세로 되어있어 56세에서 65세사이의 인구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직업과 소득원을 상실하고 사회적 유대로부터 차단되는 노인의 고통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징은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될 것이다. 81년 말의 집계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중 37%가 남자이고 63%가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가장큰 고통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역할상실 ▲퇴직에따른 소득상실 ▲신체의 쇠약 ▲배우자 상실등으로 인한 고독감등 4가지로 요약할수 있는데 노인들의 이같은 고통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따르면 성년 자녀들의 70%이상이「노부모를 자녀가 모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에서의 취업이나 경제적인 이유, 가옥구조의 문제등으로 사실상 노부모를 모시지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선진서구식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물질적 안락을 보장해주는 반면, 국가적 재정지출이 막대하고 노인들의 무력감, 고립감을 더욱심화시키고 자녀들의 부모부양의무감을 희박하게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안락한 노후 복지제도 속에서 서구 노인들의 자살률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틀을이루는 정신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높여서 노인을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정의 보호를 받을수없는 계층의 노인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5월 어머니 날을 기해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전국효자·효부를 표창한 것도 이같은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시부모를 눈물겹게 모신 며느리들이었고, 장인·장모를 헌신적으로 모신 사위는 1명도 없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도가 주로 여인들의 인습에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이 포상결과로 알수있다.

노인에게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주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노령에 접어들면 할아버지보다도 할머니가 가정에서 환영을 받게 마련이다. 할머니는 신병이 없는한 애보기, 집지키기나 청소, 빨래등 가사노동으로 가정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여성 노령인구가 남성보다도 훨씬 많지만 양로원들이 남성중심으로 건립, 운영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예식장 주례, 호텔안내, 청소년선도, 고궁안내, 가로수관리, 연초소매업등 노인의 신체적 적성에 맞는 직종을선정, 노인들에게 알선해 주고있다.

또 양로원에 들어있는 노인들에게도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사업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로원과 탁아소 혹은 영아원을 같은 시설내에 마련해서 양로원 노인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돌보게해서 노인에게 할일을 마련해주고 아이들과의 인간적인 유대를 갖게하는 방안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고령의 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수는 없으므로 노인들은 누구나 한동안 배우자가 없는 여생을 살아야 한다. 남녀7세부동석이라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체로 늙어서도「부동석」이다. 남녀를 같이 수용하는 양로원은 없고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남녀가 구역을 정해 따로따로 어울린다.

그러나 노인시설경영자들의 말을들어보면 노인들은 여전히 異性에대한 동경을 간직하고있다는 것이다. 남녀를 동시에 수용할수있는 양로원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에 많은문제가 따르게될것이라고 이시설경영자들은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남자양로원과 여자양로원의 모임이나 운동회등으로 노인들도 異性에대한 동경을 자연스럽게 해소할수있는 기회를갖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설경영자들의 주장이다.

노인의 고통중의 하나는 신체의 질병이다. 고치기 어려운 성인병도많고 또 경미한 질환도 노인에게 걸리면 더욱 고치기가 어렵다. 정부는 1년에 2회씩 노인들에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방침을 정해놓고있다.

80년대말에 전국민이 의료보험의혜택을 받게되면 노인은 가장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계층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라 종합병원들은 이미 포화상태에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老人病으로 장기입원해야하는 노인환자들을 병원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문제가 아닐수없다. 노인환자를 장기입원시킬수있는 별도의 병원이나 간호기관을 마련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의식주와 질병의 문제해결로 노인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의 여가를 이용해서 노인들은 내용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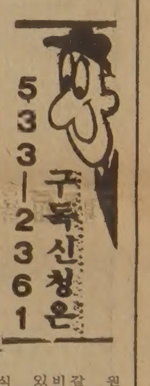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들은 은퇴후의 여가의 文化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은「원예」인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꽃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낭만적 소망이 그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수있다.

노인이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 여가위에서 老人의 文化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기술교육등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金英기자】

구독신청
533－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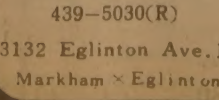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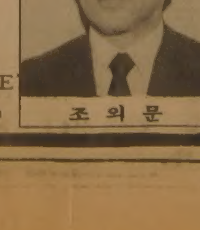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Φ FALLIS U-SAVE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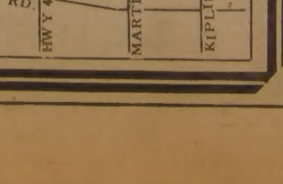
◇◇ 스페샬 ◇◇

⊙ Pepsi～Cola	(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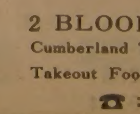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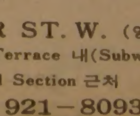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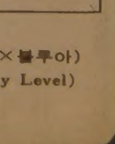


HOSANNA ART AND FRAMES

특별할인기간 : 7월말까지
OPENING SALE ☞ 20% OFF

토론토 한복판(영×블루아)에 새로 그림가게를 OPEN했읍니다.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호 올림

＊사진액자, 서양화, 동양화 액자주문.
＊자수 스트레취, 유리등 전문.
＊프린팅 그림.
＊졸업증, 각종자격증, 액자전문.

2 BLOOR ST. W. (영×블루아)
Cumberland Terrace 내(Subway Level)
Takeout Food Section 근처
☎ : 921－8093

설악산朱木 난도질

한국산악회、彌失嶺서 盜伐확인

1~5百年生 30여그루나 밑둥싹둑…일부는 뿌리째

雪嶽山국립공원의 천연기념물보호지역에서 희귀목인 朱木이 대규모로 도벌당했다. 이같은사실은 한국산악회자연보호위원회(위원장曺圭鉉문화재전문위원)가『도벌꾼들이 朱木을 대규모로 도벌하고있다』는 현지산악인들의 제보에따라 현지를 답사한결과 확인됐다.

盆栽·고급 家具用으로 인기、피해 더 있을듯

도벌현장은 강원高城郡土城面彌失嶺(해발8백26m) 부근으로 曺위원장등 4명의 조사단은 지난8일낮 元通—杆城간 46번 국도에서 1백m가량 떨어진 해발 7백m의 울창한 산림속에서 1백~5백년생 朱木30여그루가 도벌된 현장을 발견했다.

도벌된 朱木은 대부분 지름이 30~40cm로 밑둥 바로위가 잘려진채 밑둥만 남아있거나 일부는 뿌리째 뽑혀나간것도 있었다.

雪嶽山국립공원일대는 수령 1백년이상의 참나무、소나무등과 낙엽송이 우거지고 朱木등 희귀목이 많아 천연기념물 1백71호로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도벌현장에는 최근까지 도벌이 행해진듯 전기톱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도벌꾼들이 잘라낸 朱木을 국도까지 목도로운반한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파이프가흩어져 있었다.

曺위원장은 도벌꾼들이 잘라낸 朱木과 뿌리째 파낸 朱木을 소형트럭등을 이용、폭 6m의 국도를 통해 17km쯤 떨어진 束草市등으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曺위원장은『도벌꾼들이朱木을 대규모로 도벌、살목또는 분재용이나 바둑판、고급가구、장식용 목제품등으로 팔고있다』면서산림청에이같은 사실을 현장사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彌失嶺일대가 녹음이 우거져 정밀조사를 못했으나 주변일대와 雪嶽山국립공원의 다른지역에도 피해목이 상당수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朱木은 나무색깔이 주홍색을 띤 상록침엽교목으로나무질이 견고하고 가벼워 예부터 왕실의 수랏상을 만드는데 쓰이는 최고급 가구용재로 사용돼왔다.

우리나라와 중국·사할린·대만·日本등에만 분포돼있으며 해발7백m이상의 智異山 漢拏山 德裕山 小白山 太白山등 고산지대에 자생하고있으나 고급정원수로도 많이심고 있는데 2백년생 한그루에 3백여만원을 호가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본에서는「1位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릴만큼 고급수종으로 小白山 정상부근의 朱木자생 群落地는 천연기념물108호로 지정돼있다.【鄭在龍기자】

◇누구의 짓인가… 도벌된 희귀목 朱木의 밑둥。雪嶽山 국립공원일대에는 최근 1백~5백년생 朱木이 대량 도벌당했다。

消防職공무원 계급정년 축소

내무부는 10일 소방직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축소하는것을 골자로한 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정감(정원3명)의 계급정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소방감(〃8명)은 8년에서 6년, 소방령(〃81명)은 14년에서 12년, 소방경(〃1백69명)은 1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축소하고 소방정(소방서장급·70명)은 현재의 10년을 그대로 두기로했다.

이개정안은 소방직이하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조직을활성화하고 타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하게 긴것으로 평가되는 소방령과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축소한것이며 또 전문요원을 확보하기위해외국어에능통한사람을특별채용할수있도록했다.

한편 퇴직 소방공무원에대한 특별채용 유효기간을 현재의 퇴직후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1년연장했다.

靈岩에도 腦炎증세 15세어린이 高熱 구토

【木浦】전남靈岩에서 또 뇌염증세 환자가 발생했다.

靈岩郡鶴山面新德里 이재효씨(43)의 장남 元三군(15)이 10일 木浦市 섬코롬방병원에서 뇌염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李군은 5일전부터 심한 고열과 구토증세등을 일으켜 집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날 병원에 입원했다.【聯】

颱風세실 北上 速度느려 진로미상

중앙기상대는 10일 제11호 태풍 세실이 이날상오9시현재 臺灣북동쪽 약1백80km해상(북위26도1분、동경1백23도1분)에서 매시8km의 속도로 북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세실의 중심기압이 9백46밀리바로 중심부최대풍속이 시속45m인 A급태풍이나 북상속도가 너무느려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하기힘들다고 말했다.

수영장2개소 立件 入場料에 웃돈받고 定員초과 3곳行政처분통보

서울시경은 10일 수영장환경위생 일제단속에 나서 서울城北區貞陵洞山1貞陵제1수영장(대표 崔正洙)貞陵제2수영장(박진주)등 2개수영장 업주를 공중목욕장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스카이웨이수영장(貞陵洞山5의1) 타워호텔수영장(中區奬忠洞山5의8) 奬忠수영장(奬忠2街7의22)에 대해서는 강력행정처분토록 시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휴일인 지난 7、8일 이틀동안 서울시내 24개 옥외및 17개 실내수영장을대상으로 단속을 폈는데 적발된 수영장들은▲입장료에 웃돈을 붙여 받거나▲정원을초과했으며▲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눈병등 각종 질병이 옮길 위험이 큰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입건된 貞陵제1수영장의 경우 협정요금인 입장료(어른 1천원、어린이 6백50원)를어기고 각각 1천3백원、9백원으로 올려받고 정원 7백78명에 1천8백명을 입장시켰다는것.

貞陵제2수영장도 입장료를어른 1천2백원、어린이8백원으로 올려 받았을뿐만아니라 정원 2백67명에 무려2·5배에 달하는6백9명의 수영객을 입장시켜 콩나물시루를 방불케했다는것.

이밖에 적발된 스카이웨이 수영장등도 수영객을 초과입장시켰거나 수질자가시험기구인 비색기(比色器)를 설치하지않았다는것이다.

大型輪禍에「顚覆罪」적용

승객57명負傷입혀 免許만 取消된후에 運轉士 뒤늦게 拘束

交通특례法 헛점드러나

지난7월부터 발효된 교통사고특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西大門경찰서는 지난달12일하오 서울西大門區延禧洞182 弘濟川 둑길에서 서울5사571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전복, 하교길의 중·고교생등 승객5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냈던 운전사 姜純昌씨(32·서울城東區金湖1街381)를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사고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운전사 姜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8개위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처분으로 姜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만 내렸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운전사로서 50여명의 중경상자를낸 대형사고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않는것은 형평의원칙에 어긋나며 종합보험에가입한 운전자들이 방만한자세로 운전에임할것이 우려된다는 여론이일자 한달만에 새로운 처벌법규를 찾아낸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운전사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무면허운전▲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한속도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등8개항목에 해당없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형법189조 2항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조항은 운전사가 차를몰다 실수로 차를전복케 한는것으로 승객의 부상여부와는 관계없이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의경우 업무상과실치상및 업무상자동차 전복죄를 동시에 적용, 처벌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하고「8개 항목」을 위반치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게 됐었다.

경찰과 검찰관계자들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고속도로·고가도로위의 사고및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가입이나 8개위반항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大型사고에만 適用은 무리"

한편 이에대해 權宗根변호사는『자동차전복에의한 교통사고의경우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죄는 상당적경합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흡수된다고본다』고 말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처벌기준은 피해보상능력유무와 과실의 정도에있는데 단순히 대형사고라해서 특별법인 특례법을 무시하고 형법상의자동차전복죄를 적용하는것은 무리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清原서 트럭끼리 충돌

물놀이갔다오다 둘死亡·6명負傷

【清州】9일하오5시55분께 충북清原郡南二面外川里 국도상에서 新灘津을 떠나 清州로 가던 금강통운 소속 충북7아5023호 4·5톤 트럭(운전사 전근택·24)이 맞은편에서 오던 우청운수소속 충북7아6204호 8톤덤프트럭(운전사 유명옥·29)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4·5톤 트럭에 타고있던 운전사 전씨와 승객 문미숙양(22·清原郡江西面飛下里)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김화순여인(35)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같은 마을 주민 6명을 태우고 新灘津에 물놀이 갔다 돌아오던 4·5톤트럭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8톤트럭과 충돌해 일어났다.【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高速버스 또事故

益山 트럭과衝突 셋死亡·19명다쳐

【全州】9일하오7시20분께 전북 益山郡礪山面臺城里 호남고속도로에서 光州고속(대표 朴定求) 소속 전남6바1539호 고속버스(운전사郭선규·54)가 맞은편에서 오던 우주식품 소속 경남7다5766호 화물트럭(운전사 金상현·34)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李철준씨(34·부산시鶴章洞58의5) 朴금녀씨(61·전북扶安郡山內面鎭西里) 朴행질군(11·扶安郡 山內面鎭西里)등 3명이 그자리에서숨지고 李용운군(13)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서울에서 光州로가던 사고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는순간 마주오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全大統領위해음모 犯人對話테이프 증거물채택

加온타리오地法 예비審理

【터론토9日=聯】全斗煥대통령위해음모사건에 관한 6번째 예비심리가 全대통령의 캐나다방문을 3주 앞둔 9일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예비심리에서 경찰당국은 위해음모자들간의 대화를 도청, 녹음한 테이프를 재생시켰는데 이테이프가 법원에 의해 증거물로인정됐다.

이번 예비심리는 B·M·퀴리 판사를 재판장으로하여 비공개로 5시간이상 계속되었다.

이날 예비심리에는 위해음모의를 받고있는 찰스·야노버, 알렉산더·제롤과 그들의 가족및 담당변호사들이 참석했다.

7번째심리는 오는30일 열릴 예정이다.

승용차 트럭衝突 승객3명 死傷

【慶州】9일하오 8시30분께 경북月城郡外東邑 淵安里 연안교「교량위에서 慶州에서 蔚山으로가던 부산1라7703호 포니승용차(운전사 모종학·28)가 맞은편에서오던 한양운수소속 서울8아7932호 8톤트럭(운전사 발동호·20)과 정면으로 부닷쳐 승용차에 타고있던 최상식씨(44·蔚山市鶴城洞223)가그자리에서숨지고 같이탔던 곽상옥씨(42·부산東萊區蓮山洞656)와 운전사 모씨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교량은 넓이4m 길이70m의 일방통행교량인데 이날 트럭이 교량을거의다 건널무렵 반대방향에서 포니승용차가 그대로들어와 사고를냈다는것.【聯】

한국일보
533·2361

5行뉴스

◆낙지잡던 두여인 빠져숨져

【木浦】9일하오 3시30분께 전남務安郡 淸溪面南星里앞바다에서 낙지잡이를 하던 이마을 金綿順씨(37)와成花子씨(56)등 2명이 바닷물에빠져 숨졌다.【聯】

◆소몰러가다 벼락맞아 숨져

【全州】9일 하오 7시20분께 전북任實郡雲岩面龍雲里 먹골에서 이마을 박종옥씨(33)가 앞산에 매어 놓은 소를 몰러가다 벼락에 맞아 그자리에서 숨졌다.【聯】

稅務大學 機構·定員도확대 4年制로

정부는 우수한 세무직공무원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 현재 2년제로돼있는 세무대학을 4년제로바꾸고 대학기구및정원등을크게늘릴방침이다.

10일관계당국에따르면앞으로 實名制와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우수한 세무직전문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현행 2년제 세무대학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시켜 세무인재들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무대학을 4년제로 바꾸면서 현재 세무위주로돼있는 교과목을 정규대학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크게 늘릴것을 검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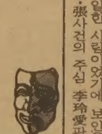
지난80년7월 설립된 세무대학은 정원이 1·2학년합쳐 3백6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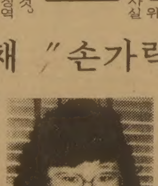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어느 監禁

李·張사건 판결문打字한 金順玉양

外部접촉 끊긴채 "손가락마다 긴장"





서울형사지법 타자수 金順玉양(22·사진)은 생전 처음「감금」을 당한 경험을 겪었다. 7일 하오2시30분에「어느방」에 들어가 9일 새벽2시께까지 감금 상태에 있었다. 물론 이 아가씨가「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됐던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 형법상의「감금」은 아니었다.

아가씨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李·張사건의 판결문을 타자해낸 역사의 증인중 한사람이었고 판사 3인외에 피고인들의 형량을 미리안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보안을 위해 李·張사건의 주심 李玲愛판사실에 갇혀 타자기와 씨름을 했던것.

아가씨는「張玲子피고인에게 징역15년」하는 선고뉴스를 들을때까지의 심경을「벙어리 냉가슴 앓은 기분」이라했다.

金양은 지난해4월 기능직으로법원에 발을 들여놓은 막내둥이 타자수。서울형사지법의 수석부장이 재판장인 합의11부에 소속되는 바람에 李·張사건이전에도 큼지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타이핑하는 관록을 쌓았다.

얼핏 기억에 나는것만해도 全民學聯사건、朴永復사건、석탄국장사건등 까다로운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李·張사건은 사회에 준 충격에 비례해 자신에게 와닿는 긴장감도 훨씬 더 컸다.

『평소처럼 주어진 일부니까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 뿐이었지만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수없었다』는게 金양의 어른스러운 코멘트。

이런 열성과 사명감때문이었는지 6만5천여字의 판결문에 誤打가 한자도 없었다고 재판장인 許正勳부장판사도 金양을 추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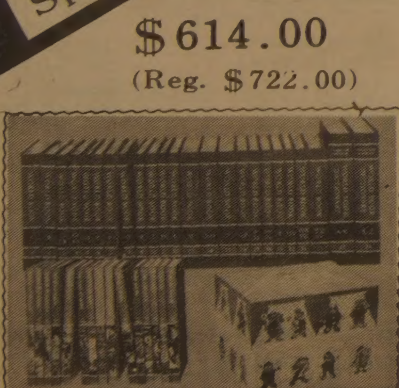
판결초고라게 원래 썼다가 빼고 중간중간에 새로 집어넣은 대목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타이핑하기 전에 읽어볼때부터 애를태우는게사실이다.

물론 한재판부의 초고를 오래 대하다보면 필체를알게되게 마련이지만 피고인들의 일생을 좌우한는 내용이담긴 판결문이란 중요성때문에 신경을 쓰지않을수 없는법이고 국민의 시선이 온통 쏠린 사건이라면 긴장감이 더할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때문에 새벽1시께 주심 李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주문을 건네줄때는『아,이제 끝났구나』하는안도감과 함께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듯 했다.

편모슬하의 2남6녀중 막내지만 이번작업을 위해 휴가도 스스로 연기했다。휴가를 반납했다던 그 재판부에 그 타자수다.【崔奎植기자】

8월 한달간 Special Offer
WORLD BOOK
$614.00
(Reg. $722.00)



22권 World Book
2권 사전
(Renassance Binding에 한함)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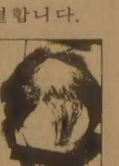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精神力 불살라 北韓 깨겠다

내일밤 南北축구 치열한 攻防 예상

【싱가포르10日=千一平특파원】 제23회 아시아 청소년축구 동부지역예선전에 출전한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12일밤

◇남북한 역대전적

	연도	대회	장소	전적
대표	78년	아시안게임	방콕	한국 0—0 북한
	80년	아시안컵	쿠웨이트	한국 2—1 북한
청소년	76년	아시아선수권	방콕	한국 0—1 북한
	78년	〃	대카	한국 0—0 북한 <승부킥6—5>

9시45분(한국시간) 열리는 북한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더욱 단단하게 정신력을 다지고있다.

이곳 전문가들은 남북대결의 승부가 선수들의 정신력과 경기당일의 컨디션, 승운(勝運) 등에 의해 좌우 된다고지적,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朴鍾煥코치는 『북한은 2년전에 팀을 구성하여 계속 집중 훈련을 받아왔고 상당수의 북한선수가 청소년 한계연령을 초과하고있지만 우리가 기술과 정신력을 살리면 북한을 쓰러뜨릴수있다』고자신감을보였다.

한국은 中共과의 첫게임서 2—1으로 패하여 스타트가 좋치않았으나 이후 말레이지아, 홍콩, 싱가포르를 5~6골차로 대파, 상승 무드를타고있으며 申連浩 李基根 盧仁佑가 호조의 득점력을 보이고있다.

나이가 많은 북한 선수들은 청소년답지않은 노련한경기운영과 기술을 구사하고있다. 한국의 코칭스태프는 국제경기 경험이 부족한 우리 선수들이 정신적 긴장감을잘조절, 최선을 다하면 북한을 이길수있다는 강한 신념을갖고있다.

朴贊希 링에

◇朴贊希

프로복싱 前WBC 플라이급 챔피언 朴贊希(24)가 1년6개월만에 링에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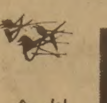
朴은 지난해 2월 숙명의 라이벌 오쿠마(大熊正二)와의 재대결서 실패한 후 현역은퇴를 선언했다가 최근링 복귀를 결심하고 체중조절및 체력단련 훈련을 시작했다.

朴은 15일저녁 日本밴텀급 5위 오하시·가스유끼(大橋克行)와 재기전을 벌인다.

앞으로 밴텀급 선수로 뛰게될 朴은 15승(9KO) 3패2무의 전적을 마크하고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㉑

마치 「앞에 가는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사람은 순경」하는 것만큼이나 의심할 여지 없이 확정된 도덕적인 순위가 회까닥 전도되는 것같은 느낌과 함께 수지는 부르짖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수지의 분노는 극심했다.

그녀는 오목이를모른척한 수철이를 용서할수가 없었다.

수철이는 그녀에게 오빠인 동시에 부모였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자 마자 수철이는 어린 누이동생을 위해 부모노릇까지를 겸했고, 그 어려운 노릇을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 해왔나는 일가친척들의 칭송이 아니더라도 수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수철이의 보호자 노릇은 트집잡을만한 꼬투리라곤없이 완벽 했었다.

따라서 수지가 오목이를모른척한 자신은 저만큼접어두고, 수철이를 용서 할수없는 건 아우를 모른척한 형은 용서할수 있어도 자식을 모른척한 부모는 용서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녀는 거듭부르짖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목이뿐 아니라 자신까지 수철이의 완벽한 위선에 기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치 벗겨진 위선의 껍질을 확인하듯이 징그러워 하면서 한편 통쾌해하면서 낡은 신문 조각을 주워 올렸다.

그때의 오목이의거처도 오누이의 집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진속의 얼굴은 수지가 알고지낼 때보다 훨씬 어려보였다. 아마 애타게 찾는 가족들의 기억력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러 어릴적 사진을 썼으리라. 그런 추측이 오목이에 대한 그녀의 연민을 한층 애닯게 했다.

아아, 가엾은 내동생…。

살점을 에는 것처럼 오목이가 불쌍했다. 수지는 오목이를 불쌍해하는 일에 흠뻑 탐닉해서, 인재한테 오목이가 버림 받았을 때도 그렇게 불쌍해 했었다는 것도, 자기역시 오목이를 몇번씩이나 모른척 했었다는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목이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마치 가짜물건처럼 제삼자에 대한 강한 증오와 표리(表裏)를 이루지않고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번쯤은 왜 그럴까?생각해 봄직도 하건만 그녀는 자기감정에 유난히 맹목이었다.

이때 마침 수철이가 서재로 들어 섰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몇발자국 뒤로물러서면서 처음보는 사람바라 보듯이 몸을 사리고 냉담하게 쏘아 보았다. 그러나 파이프를 입에 문 수철이는 심난한듯 방안에 쌓아놓은 책더미만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도냐?』

『뭐가요?』

『집안 구석구석에 온통네 짐뿐이로구나』

『그래서요?』

수지가 도전적으로 따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철이는 눈치도 없이 자신의 감상에 흠뻑 젖어있었다.

『한껏 잘 해주고싶다. 아무리 많이 해준들 뭐가 아깝겠니?그렇지만 네혼수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게 네가 떠날 날을 재촉하는 것 같아 어째 심난하구나?』

『그 동안 애써 도둑년 나 길렀단 생각은 없구요?』

수지가 좀 더 노골적으로 빈정댔다. 그러나 수철이의 인자한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너처럼 귀여운 도둑이라면 한열명쯤 더 있었으면 오죽 좋으랴』

신명난 굿판에 美여성들도 울어

―2개월에 걸쳐 美國 순회… 巫堂 金錦花씨

「미신」으로 지탄받고있는 한국무당이 미국에진출, 순회굿판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돌아왔다. 코네티컷州 뉴브리튼市에서 명예시민증도 받았고 명문예일大學에초청되어 「한국문화의 뿌리」로서 굿을 선보이기도했다。 미국 정치의 요람인워싱턴 美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시퍼런 칼날위에 서서 나비처럼 칼춤을 추며 작두를 타기도 했다。 우리나라 무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5월14일부터 두달동안 미국나들이 굿판에나서 워싱턴 뉴욕 뉴헤이븐 LA등 7개도시를 돌고 온 무당金錦花씨 (52·서울성북구석관동 319의11호)。 『미국인들에게 무당굿이 먹히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저는 가슴에쌓인 恨과 설움을 마음껏 풀어내기위해 굿판을 벌였을 뿐인데 미국인들은 굿이 끝나면 저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미국인에게서 「환상적인코리아 샤먼」이라는 환호를 받으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었던 그는 오는 8월24일 뉴욕에서열리는「연극과 祭儀」에서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 세계학자들 앞에서 「살아있는 샤머니즘」의 한 형태로서 「굿판의 신명」을 선보이게 된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한국의 샤먼" 환호

巫服40벌 나눠 입히고 觀衆과 춤도

인디언 만신들과 交流、닮은데 놀라

그는 지난5월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문화사절단으로 渡美하기까지 또한차례 「무당은 미신」이라는 사회적통념에 부딪쳐야 했다. 사절단을 보내는 관계기관의 고위인사가 『창피하게 미신을 문화사절단으로 보낼수 있겠느냐』고 반대의사를 표명, 무당의 미국무대진출은 수포로 돌아가는듯 했다.

『美스미소니언박물관 민속축제담당국장인 랠프·린츨러씨가 미국순회공연을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지요。우리나라 일부 관계자들이 무당이 미신이라고 꺼릴적에 마침 한국에 와있던 그분은 「한국 토속춤의 기능보유자인 金錦花를 미국 민속제전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 문화사절단에 참가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미국 순회공연을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백안시당하던 그가 「신비한 힘을지닌 코리아 샤먼」으로 치켜올려지고 예술인대접을 받을 적에는 자신도모르게 눈물이 솟아져 나와 비행기안에서、호텔에서 그리고 작두위에서 춤을추면서도 많이 울었다고한다。

그가 이번에 미국인들에게 선보인 철물이굿은 가을추수가 끝난후 감사와 축제의 성격을 띠고 벌이는집단놀이적 인 굿。LA에서시작된 그의 철물이굿공연은 녹스빌、캔자스、뉴헤이븐市의 예일대학、뉴브리튼市、워싱턴、뉴욕등 7개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예일대학 스프래그기념관에서의 공연때는 1천명의 관중이 지켜보았는데 교수들은 「한사람의 무녀가 어떻게 이많은 관중을 한덩어리로만들수 있느냐」고 감탄하더군요。대감놀이를 할때 몸무게가 저보다 2、3배는 무거워 보이는 남자들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액풀이를 해주고 시퍼런 칼날위에서 나비처럼 춤추었지요。마지막 홍풀이때 준비해간 무복 40벌을 관중들한테 입혀주고 춤을 추게해 저와관중이 하나가 돼서 돌아갔어요。굿제단위에 올려놨던 떡 나물과 일술을 나누어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서 금방 음식이 동이 났어요』

그는 특히 스미소니언박물관주최로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美국회의사당 앞뜰에서열렸던 제16회 미국민속제전 참가공연때는 1백만명의 미국인이 몰려와 보고 갔는데 굿이 언어와 종족과 종파를초월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빠져버리는 신명의종합예술임을 피부로 느꼈다고。

『굿판이 끝나면 울어서 눈이 부은 많은 미국중년부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그들은무아지경으로돌아가는제 춤을보고 20년간 찾아헤매던 것과 만났다는 기쁨을 느꼈다는거예요。그때 저는 「설움이 복받치기는 미국여자나 한국여자나 매한가지구나」하는 생각을했어요。특히 린츨러씨의 부인인 케이트·린츨러여사는 굿이 너무좋다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뉴욕공연까지 따라올 정도였지요』

워싱턴 인디언보호지역에 사는 인디언만신들이 그를 특별히 초대해서 함께 굿판도 벌였는데 무신도를 모시고 음식 과일 술을 제단에 차려놓고 神이오르면 무당얼굴에 돈을붙이는것까지 똑같아 「굿의 세계성」을 실감했다고。

『뉴욕 한국문화원공연과 아시아회관공연때는 ABC、NBC、CBS—TV가 몰려와 촬영을해서 진땀을 뺐어요。많은 미국학자들도 제공연을 보면서 비디오에 담았는데 오는 8월뉴욕「연극과 제의」심포지엄에 참석하게된것도 이들이 다시 한번 꼭좀 보고 싶다면서 초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는 교포들을 위한 한국문화원공연때 미국인들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자들이 많이와서 굿판을 보고 흐느꼈으며 在美교포 목사나 집사들도 그들의 종교에는 아랑곳하지않고 조국에 대한 향수때문에 향도피우고 술도따르고 한국식절을하면서 굿판에 어울려 코가 시큰해오는 민족애를경험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다른 무당들처럼 불우한 과거를갖고 살아왔다。황해도출생인 그는 12세부터 巫病을 앓기시작했고 14세때 출가했으나 17세때 무당이 되자 시댁에서 쫓겨났다。

『6·25때 남하해서 자살 직전에있던 남자를 구제해준것이 계기가돼서 재혼했어요。온갖 정성다해사람꼴을 만들어 놓으니까「무당하고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더군요。남편 없이는 살아도 굿을 하지않으면 못살기때문에아들은 세가 맡고 헤어졌어요』

그는 새마음운동과 배신의 후유증으로 미신으로 몰려서 굿펀한 [illegible]하게되자 자살까지 기도했었다고고백한다。

『올해 76세된 친어머니와 외아들환훈(23)이한테 그동안 가장 죄스럽고 미안해요。이번 미국공연은 못난 효자식과 에미로서의 설움에서 저를 벗어나게 했어요。

저도 무당으로서 당당히 우리나라 문화를 외국에 심는데 기여할수있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가 오는 8월24일 참가하는「연극과 제의」국제심포지엄은 美워너·그랜 인류학 재단、뉴욕大예술大、국제예술협회、미국연극연맹、아시아 문화회등 6개단체가 주최하는 세계적 학술세미나와 공연이병행된 행사。세계적으로 권위있는인류·민속·사회·역사·연극학 학자 30명과 브라질의 움반다 무당춤、미국의 야쿠이인디언 사슴춤、서아프리카 요루바연극、印度의 쿠티야탐무용극、日本의 노오(能)、한국의 샤머니즘등이 공연으로 선보인다。한국에서는 金泰坤교수(경희대)가「한국샤머니즘의 의미와기능」、李杜鉉교수(서울대)가「한국무당의 강신역할」등에 관해 발표를하고 金錦花씨가 이끄는 3명의巫女들이 황해도 토속굿을 공연한다。

『저는 앞으로 공부 하는 무당이되고 싶어요。제 무당춤을 다른나라 샤먼춤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싶어요。그런의미에서 이번 뉴욕 심포지엄 참가공연은 공부하는데 귀중한기회가 될것이에요』

그는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에서 공연했던 레퍼토리의 굿을 한국무대위에 올리겠다고 밝힌다。【嚴彼孚기자】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뜰에서 미국인관중들이 운집한가운데 굿판을벌이고있는 무당 金錦花씨。

◇우리나라 무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순회굿판을벌이고 돌아온金錦花씨。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BACK to SCHOOL

Money-making Specials

Hilroy

			Retail	Cost
05-235	100 SHEET LINED	30	169	75
05-224	PLAIN	30	169	75
05-233	200 SHEET LINED	20	299	137
05-225	PLAIN	20	299	137
05-232	250 SHEET LINED	10	399	169
05-240	400 SHEET LINED	10	699	325
05-238	500 SHEET LINED	8	749	350
12-102	4 PACK EXERCISE BOOKS	40	249	125
13-121	COIL EXERCISE BOOKS	40	149	75
1669	COIL EXERCISE BOOKS WITH PICTURE COVER. ASSORTED SPACE WAR, NHL, GUINESS ETC	48	199	59
21-120	TYPE PAPER TABLETS	80	89	46
21-220	TYPE PAPER PACK 144 SHEETS	30	249	119
06-248	REGULAR DUOTANGS 100 DISPLAY	1	46	21
06-241	" " 5 PACK	40	249	125
06-448	3 HOLE DUOTANGS 80 DISPLAY	1	49	25
06-449	" " 4 PACK	50	225	115
41-400	FUNTIME ART PAPER	60	189	95
28-001	SCHOOL BOX SET	6	399	180
53-122	STENO BOOKS	20	89	45

BINDERS

			Retail	Cost
24-402	PRESSBOARD BINDERS 5/8"	30	249	110
24-403	" " 1"	20	269	110
2107	SUPER PRESS BINDERS	72	119	60
P21	POLY PRESS BINDERS	72	129	65
P51	GAGE BOARD BINDERS ½"	12	159	60
24-601	POLY BINDERS 5/8"	20	299	119
24-602	" 1"	20	399	125
24-603	" 1½"	10	599	250
04-529	VINYL BINDERS 1"	20	369	120
04-539	" 1½"	10	479	175
04-549	" 2"	10	599	230
17-229	VINYL FOLDING CLIPBOARDS	24	329	110

BiC

P28	BIC PEN MEDIUM BLUE (BULK ONLY)	144	35	15
P29	BIC PEN. VALU PACK	24	195	95
P30	BIC PEN. 3 PACK	24	105	45
P31	BIC CRAYON MARKERS. 7 PACK	24	195	80
P32	BIC ULTRA FINE MARKERS. BLUE & BLACK	12	99	45

FaberCastell
Laurentien

			Retail	Cost
1833	LAURENTIEN COLOR PENCILS 8	12	325	140
1834	" " 12	12	459	200
1835	" " 20	6	699	325
P22	" " 24	6	799	350
P25	LAURENTIEN FLO MARKERS 12	24	159	78
1859	LAURENTIEN MARKERS 8	24	179	90
1860	" " 12	24	259	130
1861	" " 20	24	399	195
1885	HB PENCILS 144 IN TUB	1	25	13
1856	HB PENCILS 6 PACK	24	159	79
P23	" 10 PACK	24	249	110
P24	VENUS VELVET PENCILS	50	39	15
P26	VENUS 3 STICK PEN CARDED	36	89	45
P27	ULTRA FINE LASER PENS	48	99	49
P67	VENUS GOLIATH PENCILS	12	99	49
P66	VENUS COL-E-RASE PENCILS	12	149	75
P64	CADOMARK MARKERS BLACK - RED - GREEN	10	99	35
P61	POINT 5 MECHANICAL PENCIL & LEAD PACK	12	329	165

crayons

P33	WHITMAN CRAYONS 8	24	75	35
P34	" " 16 PLASTIC BOX	24	159	69
1802	CRAYOLA CRAYONS 16	12	135	65
P35	WHITE CHALK	12	75	34
P36	COLOURED CHALK	12	85	45

PAPER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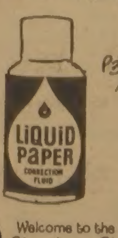
			Retail	Cost
2175	ERASERMATE PENS	12	249	115
1690	STANDARD PENS	12	169	85
1691	MALIBU PENS	12	219	110
1692	VILLAGER PENS	12	299	150
1693	PROFILE PENS	12	450	225

SHEAFFER PEN

1891	SHEAFFER CARTRIDGE PENS	12	299	150
1892	" BALL POINT PENS	12	269	135
2203	" KALEIDOSCOPE PENS	12	399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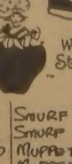
Sellotape

1403	1000" CLEAR TAPE	48	109	55
1405	800" MAGIC TAPE	12	129	65



LIQUID PAPER® Correction Fluid
P37 LIQUID PAPER 2 PACK 20 350 159
80¢ PER SINGLE BOTTLE

"SMURF" The MUPPETS


Welcome to the World of Strawberry Shortcake

P38	SMURF SCHOOL TOTE BAGS	12	449	240
P39	SMURF SCHOOL BAGS	12	649	325
2230	MUPPET SCHOOL TOTE BAGS	12	449	200
2214	MUPPET SCHOOL KIT	12	299	150
2220	MUPPET GIANT PENCIL SHAPE CASE	12	229	99
2222	MUPPET SHARPENERS	12	249	125
P40	SUPERHEROES PENCIL CASES	24	99	39
P41	RAGGEDY ANNE & ANDY PENCIL CASES	24	99	39
P42	SUPERHEROES LUNCH MONEY PENCILCASES	24	129	55
P43	RAGGEDY ANNE LUNCH MONEY PENCIL CASES	24	129	55
1853	PLAID 3 HOLE PENCIL CASES	24	99	39
1663	STRAWBERRY SHORTCAKE MEMO PADS 3X5	24	59	33
1664	MEMO PADS 4X6	24	59	33
1665	" DIARY	12	399	216
1666	" MATCHBOOK PADS	24	79	44
2223	" SCRIBBLE PADS	12	269	150
2225	" PENCIL TABLETS	12	159	87
2226	" CONSTRUCTION PAPER TABLETS	12	349	190
2125	SCHOOL TOOLS	12	399	200
2122	MORE SCHOOL TOOLS	12	399	200
2126	WEBSTERS DICTIONARY	12	329	150
2127	ROGETS THESAURUS	12	329	150
2128	FLINTSTONES DICTIONARY	12	329	150

YO-YO free

BUY 6 — 1 FREE

MA165	CHAMPION YO YO	12	249	150
MA166	PRO-TOURNAMENT YO YO	12	299	180

			Retail	Cost
1676	ALCO 9 PC. MATH SET PLASTIC BOX	12	199	99
1678	BUSTO DELUXE MATH SET. PLASTIC	12	329	165
2165	BUFFALO MATH SET. METAL BOX	12	319	160
P48	PROTRACTORS	24	19	09
P49	GRANADA COLOUR PENCILS 6's	12	99	50
P50	" " " 12's	12	169	85
2211	DISPENCILS	72	59	25
1870	PINK ERASERS	36	10	05
1636	COMBINATION LOCK DIAL	12	239	120
1637	" " FLAT	12	159	69
1621	WOOD RULER 12"	36	39	15
1884	PLASTIC RULER 12"	36	39	20
1603	PAINT SET	12	79	40
1604	STARS	12	69	35
1606	RUBBER BANDS	12	59	30
1612	PAPER CLIPS	12	59	30
1614	ERASERS 7 PACK	12	69	35
1617	COMPASS	12	79	40
1622	THUMBTACKS	12	79	40
1611	PAPER FASTENERS	12	69	35
1641	2 HOLE PENCIL SHARPENERS	12	49	25
P53	CYLINDER PENCIL SHARPENERS	12	59	25

COLOURING BOOKS

P44	COLOURING BOOK ASSORTMENT A	48	25	10
P45	" " " B	48	15	05

mpc FAST 111's amt

P46	MPC FAST 111's MODEL KITS	6	649	300
P47	AMT VANS & CARS MODEL KITS	6	899	375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日、再修正 가능성

스즈끼首相회견 "내달 中共방문前에 타결"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은 일요일인 8일 나가사끼(長崎)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쟁을 빚고 있는 日本역사교과서문제에 관해 연설하고있다.【나가사끼(長崎) 9日AP聯=聯】

「先中共·後한국」해결企圖

올핸 正誤表… 내년후 修正

日紙보도

【東京9日=宋孝彬특파원】한국및 중공과의 외교분쟁으로 확대된 교과서왜곡문제를 놓고 일본정부는 이를 양국으로부터의 항의와 자민당의 반발을 조정, 명분을 찾는 중간선에서 교과서의 왜곡부분을 재수정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끼(鈴木)수상은 8일하오 나가사끼(長崎)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재수정문제에 언급『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오는 9월 중공방문전까지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일본정부가 이문제를 조기타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서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같은 스즈끼의 발언은 지금까지 「재수정不可」를 고수해온 문부성의 입장과는 달리 재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原爆기념행사에 참석키위해 나가사끼에 온 스즈끼수상은 『불행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인근諸國의 국민심정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현재 일본은 한국및 중공과의국교정상화 당시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성의를 갖고 교과서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스즈끼수상이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수정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 어떤 형태로든 재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굳히고 오가와(小川)문부상에게 이같은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자민당내의 강경파인사들에대해서는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신문은 스즈끼수상의 조기해결결단은 오는 9월26일의 중공방문을앞두고 교과서문제가 시일을 오래 끌게되면 한국과 중공등의 對日감정악화뿐아니라 일본정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東京신문은 9일자에서 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문제를 먼저 중공과 해결한다음 같은 방식에따라 한국과도 해결할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일본측의 이같은 방침은 15년간의 中日전쟁이 한국의식민통치와는 비교가안되며 따라서 비판의 소리도 한국이 훨씬 강하므로 먼저 중공과 해결하는것이 한국보다는 쉬울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것이라고 일본외교소식통이 말했다.

일본외교 소식통들은 먼저 중공과 교과서분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正誤表를 붙이는 선에서 해결하고 내년이후에 수정하는「장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공이 즉각적인수정이 아닌 이같은「正誤表」형식의수정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泰國도 歪曲항의 波高높아

言論들 연일報道 "細菌戰까지획책한 軍國의 새表現"

【방콕9日=李鍾九특파원】제2차세계대전때 일본제국주의군대가 머물렀던 泰國도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日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있다.

이곳 신문과 방송들은 2주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왜곡 표현부분과 이에 따른 한국등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주요뉴스로 보도해왔다.

9일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외신면 사이드 톱에서 일본의 특사-파견고려를 한국이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제2차 대전당시 일본군대가 세균전을 기도했다는 사실을폭로, 『일본의 이러한 만행은 제쳐두고라도 이웃을 침략한 사실을 감추려하고있다』고 비난한 해설기사를 전재했다.

또 영자지 방콕월드도 역시 외신면에 톱으로 일본 중의원에서 야당의원의 공격을 받고 난처해하는 문부성 장관의 사진을 실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 방콕지국은 이날 7일자 이곳 권위지의 하나인샴라트가 논평기사에서 「일본이 2차대전이후 국력을 성장시킨뒤 군사력을 대신해서 신군국주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역사교과서를 왜곡시켜왔다」고 신랄하게 비판사설을 지적했다.

또 방콕의 화교계 6개일간지는 연일 격렬한 내용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1면 외신 사설을 총동원해서 다뤄오고 있다.

한편 9일 방콕주재의 일본대사관 한관리는『며칠전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대사관 경계를 강화했다』고 말하고 어느정도의 경계상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교포들은 방콕의 신문과 방송들의 보도태도가 한국에대해 매우 이해적이라고 평했는데 그이유는 泰國이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착해있어 지금까지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는 보도를 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通貨팽창 對策강구

金부총리 증가율 32·5%… 物價위협

金俊成부총리는 [illegible]일『통화의 과다공급이 [illegible]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통화증가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시달했다.

金부총리는 이날 상오 경제기획원 3층회의실에서 열린 月例조회 훈시를 통해『그동안 통화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사채시장 위축에 따라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7월말현재 총통화증가율이 32·5%를 시현했다』고 밝히면서『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돼야할 단계에이르렀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아직도 수출이 부진상태를 벗어나지못하고 있음을 중시, 관민이 합심해서 수출증대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정부가 수출진작을 위해 정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수출관계기관및 단체, 기업들도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巡訪國 大使부부들 全대통령, 초치오찬

全斗煥대통령은 9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아프리카4개국및 캐나다등 巡訪國의 駐韓대사부부를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나누며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바우어 캐나다대사부부,온요니케냐대사부부(일본常駐) 발레와 나이지리아대사부부(〃)시세세네갈대사(〃)지파노가봉대사부부,페레스·마우라스페인대사부부,알올·마지드말레지아대사부부등이 참석했으며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장기근속手當 7급이하까지

내년부터 支給계획

정부는 현재 6급(주사)공무원에 지급하고있는 장기근속수당을 내년부터는 7급(주사보)이하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등 下位職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총무처 고위관계자는 9일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인상률에 差等을두어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5、7、9급 신규채용자등 근속연수가 짧은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장기근속자의 향상에 중점적으로 노력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하위직과 장기근속자 우대원칙에따라 현재 6급공무원중 10년이상 근속자에게 3만원, 5년이상근속자에게 2만원씩 지급하고있는 장기근속수당을 7급이하공무원에게까지확대지급하는한편 지급액도 인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

총무처의 다른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과 관련,『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실질처우개선이 이뤄질수 있는선에서책정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중』이라고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5~6%로잡고 있어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도 금년도 수준인 평균9%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李哲熙·張玲子 15년 宣告

"選擧用 아니기를"

外務部、마쓰노妄言규명 訓令

정부는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일본측이 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않는한 현시점에서 일본측 特使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으나 일본정부가 명백한 시정의사를 표명할경우 일본측의 특사派韓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외교소식통은 스즈끼(鈴木善幸)日수상이 「원칙적인 시정」방침을 천명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이는 일본自民黨총재선거를 앞두고 일본국내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일본은 시정문제를 둘러싸고 自民黨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명확한 정부태도를 결정짓지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무부는 지난 7일 마쓰노(松野幸泰) 日국토청장관의 安重根의사에대한 妄言에대해 駐日대사관을 통해

미테랑、全大統領 초청

【서울7日AP=聯】李範錫외무장관은 6일 한국정부가 플로랑·셰송 프랑스 외상의 訪韓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韓佛양국의 분위기는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AFP통신기자와의 회견에서 한국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민 자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셰송외상이 밝혔다고 전하면서 그같은견해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프랑스의 北韓승인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그(셰송외상) 자신이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은 北韓승인이 현실로 나타날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예정인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美계략에 빠져 眞珠灣공격

日、영화까지 歪曲

WP紙서 報道

【워싱턴9日=李文熙특파원】미국의 워싱턴·포스트紙는 8일 東京에서 개봉된 일본영화「大日本帝國」에 관한 기사를싣고, 이 영화에 의하면 일본의 眞珠灣 공격은 미국의 계략에 일본이 빠져 들어 일어난것처럼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영화, 2차대전의 얼굴을 바꿔놓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에 일본의 침략사를 왜곡한 교과서 개정으로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많은 항의와 비판을 받고있음을 지적하고 이 영화가 과거의 일본영화처럼 전쟁의 비참함을 묘사함으로써 평화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2차전 당시 일본의 희생과 일본인의 논리같은 것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공이 이 영화를 반동적이라고 평했으며 군국주의의 재기를 노린 것이라고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신문들은 지난번 일본의 히다찌(日立)、미쓰비시(三菱)社의 미국 IBM컴퓨터기술 절도사건때도 일본인들이 절도사실보다 미국 FBI의 함정수사만을 더 비난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었다.

첫 眞性뇌염

莞島어린이 혈청검사로 밝혀져

금년 첫번째 진성일본뇌염환자가 발생했다.

보사부는 9일 전남의대부속병원에 입원했던 崔永壽군(11·전남莞島郡蘆花面防西里)의 혈청을 채취,검사한 결과 진성일본뇌염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崔군은 지난달26일 입원했는데 미열이 계속되고 팔다리경직상태를나타냈으나 9일 현재회복단계에접어들었다.

보사부는 금년들어 의사뇌염증세환자는 전국에서 모두 17명이나 혈청검사결과 그중 崔군만이 진성으로 밝혀지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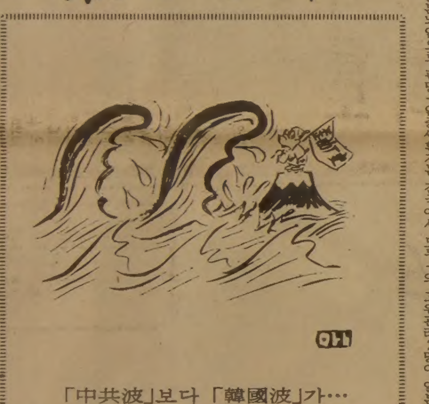
日고위층2명 冷淡속 北京着

【北京8日AP=聯】일본정부의 고위관리2명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으로 일·중공간에 빚어진 격심한 논쟁을 해소시키기 위해 8일 北京에 도착했다.

일본외무성의 하시모또·히로시(橋本恕) 정보문화국장과 오오사끼·히또시(大崎仁) 문부성국제학술국장은 아나미·고레시게외무성대변인을 대동하고 중공당국에 일본교과서검정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北京공항에 도착했으나 中共관리들은 한사람도 공항에서 이들을 마중하지않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시모또 외무성정보문화국장은 기자들에게 4일동안 北京에 머물것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공외무성이 마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中共波」보다「韓國波」가…

國語에도 檢定橫暴

在日韓人 작품삭제

【東京8日=聯】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한국·중공등으로부터 호된비판을 받고있는 일본의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어교과서에도 있다고 크게 보도하면서 한일합방에 의한 일본어 강제사용으로 모국어를 상실한 한국의 슬픔을 그린 재일인작가 高史明씨의 작품등이 교과서 검정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다.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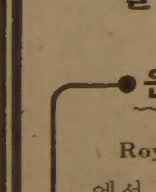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고 史記를쓴 司馬遷은 말한 일이 있다. 또 그는 天高聽卑 ―하늘은 높지만 낮은 땅위의 모든 일을 듣고 있다고 말한다. 한 번 행한일은 숨길수가없고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란뜻이다.▼歪曲된 일본교과서에 대한 세계각국의 輿論이 들끓는것도 이때문이다.일본이 한국침략을 아무리 역사적으로 美化하려고해도 그 참상을 직접겪고 보고 들은 한국민이 살아있는한 헛된일이다. 美辭麗句로 일본관료들이 한국침략을 強滯해도 진실을 외면할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史實이지 가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핏하면 한국에대해 偏向보도를 하던 일본신문들이 그들 정부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알만하다.▼신문의 진실 보도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을 때다. 당대의 웅변가 에드거·에벳이 두시간 반동안 긴연설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연설이 끝나자 대회장은 박수가 계속 터지고 흥분의 도가니였다. 그뒤를 이어 풍채도없고 수염투성이의 한 사나이가 등단,5분가량 조용조용 말했다. 소리가 작아 연단앞줄에서만 들릴정도였다. 청중들이 한동안 멍해졌다가 겨우 그말뜻을 알아듣자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구레나룻의 사나이는 나중에 노예해방의 영웅이된 링컨이었다.▼하나 그다음날 대부분의 아침신문엔 에벳의 대연설이 두면에걸쳐 보도된데반해 링컨연설은 보일똥말똥했다.다만 한신문(워싱턴·포스트)만이 에벳연설을 무시하고 링컨연설을 크게실었다.스피치의 열배가량의 해설도 함께실었다.「正義가 힘이라는것을 믿자.신뢰의 바탕위에서서 스스로의일에 최선을 다하자. 뭉쳐야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의전형으로승화시킬수있다」…라고 링컨은 말하고 마지막으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로 끝마무리를했다. 이링컨연설은 오늘날 국민학교학생도 다알만큼 유명해졌는데 에벳의 연설을 아는이는 없다.워싱턴·포스트가 링컨연설을 올바르게 그날 취급 안했으면,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날과 같이 번성 못했을지도 모른다.▼아뭏든 목소리는 작아도 진실을 말해야 공명을 얻는 것이다. 사면초가의 일본정부가 이번교과서문제에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링컨의 故事라도 읽혀주고픈 생각이 앞선다.

文武대왕陵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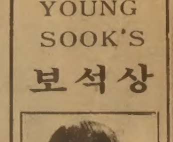
金총리

지난7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9일하오 慶北月城郡에있는 文武대왕 水中陵을찾아 참배했다.

金총리서리는 10일 慶州시내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등을 돌아본뒤 11일까지 慶州에서 머물예정이다.



한국일보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8.15경축 제2회 전 캐나다 교민 체육대회

일 시 : 1982년 8월14일(토요일) 오전 8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운동장 BUS편

Royal York(Subway Station)에서 BUS 2A를 타고(Centennial Park Dr.로 가는것임) ※CENTENNIAL PARK STADIUM정문에서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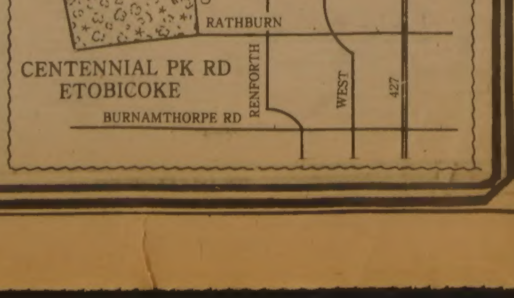
사 과 문

금번 8.15체전과 함께 공연 예정이었던 연예인쇼는 Etobicoke시 By-law에 의해 운동장에서의 공연이 금지되었음에, 교민들께 지면을 통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교민위안의 밤을 꼭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참가팀및 단체는 당일 8:30분까지 꼭 집합하여 입장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스즈끼 발등에 불

재수정 결심

교과서歪曲 한국·中共 강경抗議로

訪中취소되면 總選 큰타격
作業은 눈치봐 내년에할듯

【東京9日=宋孝彬특파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된 스즈끼수상은 한국과 중공이 요구하는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에 응할 결심을 굳히고 있다고 일본신문이 9일 일제히 보도했다.

검정교과서의 왜곡문제가 문부성의 차원에서 해결되기를바랐던스즈끼수상은한국과 중공으로부터 격심한 항의에 의해 심각한 외교문제로 발전하자 오래 끌면 불리하다는 판단아래 조기타결원칙에 의한 재수정작업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착수했다.

스즈끼수상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오가와 문부상에게 그뜻을 전하고, 오가와 문부상은 6일 국회답변을통해 필자와 출판사로부터 재수정을 위한 正誤정정요청이 왔을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신축성있는 발언을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왜곡부분을 당장 금년부터 고칠것인가, 내년에 할것인가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못한채 한국정부와 중공측의 의사타진을 마친뒤에 결론을 내릴것으로 보인다.

스즈끼수상은 9일 나가사끼原爆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외교문제로 발전한 교과서문제에 관해 『9월하순 중공을 방문하기 전까지 원만히 해결될을 믿는다』고 전망하고 『불행스런 전쟁에의한 인국의 피해에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그나라 국민이 입은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한국과 중공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의를 갖고 대처할 필요가있다』고 말해 검정교과서를 재수정할뜻을 비쳤다.

스즈끼수상은 검정교과서의 왜곡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재수정해야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다는 방침을 세운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누가 보든지 명백한 잘못인 역사적 사실의 왜곡기술은 빨리 고치는것이 해결의 첩경이며 오래 끌면 끌수록 일본의 국제적 고립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과서의 재수정에 의한 黨內반발보다는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국제적인 비난의 폭이 더 심대하다는 점이다.

스즈끼수상은 9월의 중공방문등이 교과서 문제로 나쁜 영향을 미칠때 일어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영향은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것이란는 판단아래 재수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게 됐다.

더우기 韓·日, 日·中共간의 관계악화가 아시아 전반의 우호외교에 나쁜영향을미칠것이 분명하고 이같은 외교적인 실패가 11월에 열릴 총재선거에 복병으로 나타날것을 크게 우려했다.

사실 自民黨 안에서는 연말 총재선거를 앞두고 스즈끼수상에 대한 정면비판은 아직없으나 3조엔이 넘는 세입결함, 80조가 넘는 재정적자, 그리고 행정개혁을 둘러싼 불만이 안으로 곪아있어 만일 중공방문이 취소되는등 차질이 생기면 自民黨의잠재적 불평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검정교과서를 당장 고치는것은 自民黨강경파와 문교위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칫 잘못하면 스즈끼수상 재선의 가반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렇수도 저럴수도없는 입장에 빠진 스즈끼수상은 재수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선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출하자는 방침을 세운것이다.

교과서문제를 조속히 수습하지 않음으로써 파생하는 국제적인 반발보다는 왜곡교과서를 재수정함으로써 일어나는 당내반발의 진폭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문교위소속의원들은 『외국의 압력으로 교과서를 고치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주권의 상실』이라고 주장, 강력히 반발하고있어 당장 금년에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을 착수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더우기 한국과 중공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교과서문제가 수습될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중공에대해서는 외무성의 하시모토(橋本) 정보문화국장과 문부성의 오오자끼(大崎) 학술국제국장을 8일 파견한뒤를이어 한국에는 앞으로 기우찌(木內) 아시아국장과 다까이시(高石) 관방장을 파견, 양국의 진의를 탐색할 계획이다.

중공은 新華社통신을 통해 우선 「침략」을 「진출」로고친점과 만주사변 南京학살사건의 역사적 왜곡을 지적, 수정할것을 내세우고있으며 한국정부는 「3·1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것을 비롯, 24개항 1백67개소를 지적하고있어 일본정부는 어떤것을 먼저 수정해야할 것인가에관해 외무, 문부성의 고위관리 파견을통해 양국정부의 진의를파악할 계획이다.

교과서문제를 둘러싸고 내각에서 『내정간섭이다』『잘못된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는등 상충된 의견이나오고있는 것과는 달리 自民黨은 침묵을 계속하고있다.

自民黨이 교과서문제에 직접 간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만큼 교과서검정이 日教組의 좌경편향교육을 막아준공로가 있으며 당내파벌간에복잡한 영향을 줄수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즈끼수상은 당장 금년에 교과서의 재수정에 착수하기는 어려우며 韓日국교정상화때밝힌 공동코뮈니케와 日·中共공동성명에서 밝힌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깊은 반성을 한다는점을 재확인, 내년이후에 한국과 중공이 지적한 왜곡부분을 재수정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수습하려는것으로 보인다.

◇臺灣청년들이 8일 臺北중심가에서 日本의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있다。 【臺北 8日AP聯=聯合】

메아리

수박律

오랜 가뭄끝이라 올여름의 과일맛은 꿀맛이다. 풍작이어서 産地에서는 과일값이 떨어지고있다. 맛있고 값싸고, 생산자는 울고 먹는 사람은 웃는다.

길을 가는데 한 과일가게앞이 떠들썩하다. 두남자가 서로 멱살까지 잡고 으르렁대며 싸움이 붙었다. 한남자는 가게 주인이고 딴 남자는 손님이다. 듣자하니 수박 한덩이가 시비를 일으켰다.

손님이 수박을 사러와서 익었는지 안익었는지 따봐 달라고 했다. 따더니 손님이 보기에는 익지 않았고 주인이 보기에는 익어있었다. 손님은 익지 않았으니 대신 따지않은 다른 수박 한덩이를 사 가겠다고 했고 주인은 잘 익었는데 안사가면 되느냐고 따놓은 수박을 꼭 가져가라고 우겨 싸움이 시작된것이다. 주인은 이래도 안익었느냐면서 수박을 땅바닥에 대고 두동강을 냈다. 깨진 수박은 빨갛게 잘 익어있었다.

여름철에 흔히 있을수있는 시비다. 고로 수박장사는 하기 힘들다는 말이있다.

싸움이란 잘 잘못이 있는 법인데 자, 이런 경우 어느쪽이 옳으냐。모여든 사람들도 어느 한쪽편을 못들고 구경만하고있다. 난처한 심판이다. 그러나 내보기에는 수박이 아무리 잘 익었더라도 수박장수의 잘못이다.

우리사회에는 이런류의 싸움이 너무나많다. 걸핏하면 고함이요 핏대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삐꺽거리게 한다. 윤활유 먹지않은 기계같다.

왜 이런 싸움이 잦은가. 룰이 없기때문이다.

교통순경도 없고 아무 신호판도 없는 네거리에 각방향에서 한꺼번에 차가 나왔다고 치자. 서로 먼저 빠져 나가려고하면 충돌사고가 나거나 서로 욕지거리를 하거나하게 마련이다.이런경우를 위해 대개의 나라들에는 「右側우선」이라는 룰이있다.

가게나 식당같은데서 주인과 손님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언제나 손님이 옳다。주인이 양보해야한다. 이런 룰이 필요하다. 이런 룰이 확립되면 주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양보하는것이 아니라 룰 때문에 양보하는것이니까 손님한테 진것이 아니다. 조금도 분할것없다. 그리고 과일가게주인은 식당에 가면 손님이된다.

일본사람을 지금 추키고있을 계제는 아니지만, 이사람들을 본받을것도 있다.

일본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자칫 쌓아놓은 물건을 떨어뜨리기라도하면 점원쪽에서 오히려 백배사죄를 한다. 물건을 잘못 쌓아 통행에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주인이 잘못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점원의 핀잔을 받다가 결국은 시비로 번질일이다.

손님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종업원들에게 일러온 한 식당주인말이 생각난다. 하루는 종업원 하나가 손님한테 잘못한것도 없이 야단을 맞았다. 갖은 욕설을 퍼붓는것을 아무 대꾸않고 꾹 참고 듣고 있던 종업원은 주방으로 달려가 가슴을 치며 엉엉 통곡을 했다。주인이 쫓아가 어깨를 두들기며 한달치 월급만한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주었다.

종업원들의 친절이 소문난 그 식당의 주인은 그 한달치 월급만한 돈을 금방 도로 벌수있었다. 수박장수가 다투지않았더라면 이 더운 한여름철에 다섯개고 여섯개의 수박을 그 손님에게 더 팔수 있었을것이다.

「항상 손님이 옳다」는 이 조그만 룰하나가 사회를 명랑하게하는 효과는 의외로 클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 수박장수의 시비는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손님은 결국 처음 주장대로 따지않은 다른 수박 한덩이를 들고 가고 있었고 주인은 깨뜨린 수박을 손으로 뜯어 먹으며 혼자 연신 투덜대고 있었다.

金聖佑 <編輯委員>

◇신나는 삼바춤＝형형색색의 고전의상을 걸친 리오데자네이로의 임페리오·세라노 무희들이 7일 東京센소지절에서 개최된 아사꾸사삼바카니발에 참석, 군중들이 지켜보는가운데 공연을하고있다。【東京8日UPI聯=聯合】

海外토픽

蘇 資本主義에골치
★國營농장서 花草재배 盛業

소련당국은 개인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일부국민들의 자본주의 사조에 골치를 썩이고있다고.

소련의 「전원생활」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국영농장의 많은 거주민들이 야채나 과일재배등 공적으로 부과된 작업을 무시하고 주요도시에 내다팔면 큰돈을 벌수있는 화초재배에 열중하고있다고 보도하면서 거주민들이 국영농장에서 싼값으로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및 여타시설들을 이용, 꽃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주민은 화초재배 면적을 늘리기위해 과일나무를 잘라버리기까지 하고있다고 개탄했다는것. 【모스크바=UPI】

美보다 蘇가더위협
中共 北京周報주장

중공은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를 다같이 반대하나 현재 세계평화와 제3세계에 더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있는 나라는 바로 소련이라고 중공의 英字誌인 北京周報가 8일 주장했다. 이 시사잡지는 불안한 現세계정세는「초강대국」인 美國과 소련간의 대결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소련이 공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이 수세에 몰려있는 현상황으로 보아 세계평화에 중대위협이 되고있는것은 소련』이라고강조했다. 【北京=AP】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4>

誤導된 對韓觀

뿌리는 史實 改作한 戰前세대에

"在日동포 돈벌려고 왔다" 主張도
한국人과 못놀게하는 父母 많아

지난 봄 日本의NTV를 통해 5회에 걸쳐 방영된 다큐멘터리 「일제36년」에 등장한 어느 한국소년의이야기는 재일동포들에게 보다는 일본인들에게 더큰충격을 주었다.

요꼬하마(橫濱)어느소학교4학년인 이소년은 인터뷰기자에게『일본인 친구들이 「조센징」이라고놀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아 교실에 들어가기가싫어요. 그래서 공부시간에도,쉬는시간에도 언제나 여기서혼자 앉아있어요』하고 말하며 학교안 동산의 숲속을 가리켰다. 인터뷰기자가 『여기 앉아서 무슨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소년은 『죽어버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재일동포 학생들이 일본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새삼스럽지않은 얘기지만, 죽어버리려했다는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가 아닐수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놀란것이다.

이 프로는 또 79년9월 사이따마(埼玉)縣가미후꾸오까(上福岡)市 고층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중학생 林賢一군사건을 다루면서 林군의 자살은 일본인 급우들의 민족차별때문이었다고 밝히고, 그 증거로 林군이 소학교를 졸업할때 급우들로부터받은 기념사인북을 비춰주었다.

『하야시(林)。제발 좀 죽어주어、부탁이다』『너 같은 조센징과 다시는 같은 반이 안되게 되어 기분 좋다』『하야시 멍텅구리…』

사인지에 쓰여있는 일본학생들의 코멘트는 한결같이 악의에 가득찬 모독과 야유 뿐이었다.

79년 중학생이된 林군은 새로운 급우들로부터 계속 시달렸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도둑 누명을 쓰기까지 했다. 이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한 林군이 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동급생들은『자살도 못하는 주제에!』하고 놀렸다。끝내 그해 9월9일 林군은 [illegible] 했다. 세상 살기가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illegible] 대기에서 뛰어 내리고 말았다.

소학교 4학년[illegible]는 죽어버리려한[illegible] 一중학교 [illegible]을 「결행」한데에 차이는 있으나 일본학생들로부터 받은 아픔의 정도는 똑같은 것이다.

「민족」이란 말도 모르는 유치원어린이들까지도 비슷한 것을 느낀다.

東京의 고급주택가 나까메구로(中目黑)에 사는 한 재일동포주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아들이『엄마, 나는 왜 일본사람이아니야? 나 일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하고 일본이름을 지어달라고 조르곤 한다고 말했다. 너는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이름이 더 좋다고 말해주어도 가끔씩 똑같은 떼를 부리곤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들 까지도 한국인에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전 東京大 사회심리학교실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일본인 가운데 한국인에게 호감을갖고있는 사람은 불과 0·7%인데 비해 우월감을 느끼고있는 사람은 무려 65·9%에 달했다.

지난 80년 가와사끼(川崎)고교에서 전국 21개고교생들에게 민족차별에대한 앙케트 조사를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응답자의 25%가『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것으로 집계됐으나 한국인학생이 많이 다니는 가와사끼高 어느학급에서는 44명의 학생가운데『편견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 한사람 뿐이었다.

이학교 전교생을 상대로한 앙케트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있는 이유에대해 어처구니 없는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기네 조국이 싫으니까 ▲일본인을 괴롭히고 싶으니까▲돈을 벌기위해 ▲일본은 범죄에 관대하니까 ▲「스시」(초밥)가 맛있으니까, 이상이 일본 명문고교생들의 在日同胞에 대한 「지식」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강제로 징용한 역사적 사실때문이라고 알고있는 학생이 없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왜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있는지 알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은『한국인은 야만이다. 무섭다, 바보다, 싫다, 한국인이 먹는음식은 우리는 먹을수 없다』는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밝혀졌다。

『한국인과 놀아서는 안된다고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타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사람이 무슨 괴물처럼 보이는 모양이지요。한국학생과 놀았다고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일본학생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오사까에서 만난 어느 교포는 잘못된 학교교육탓만이 아니라 한국을 사갈시(蛇蝎視)하는 일본의 前戰세대들에 의해 한국인상이 오도돼 젊은세대들의 한국관도 뒤틀어져 버린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나라가 소련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란는 總理府여론조사의 결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東京에서 만난 어느잡지사의 일본인기자는『일본인들이 한국인에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있는것은 불행한 시대에 일본에 살았던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인상이 굳어져버렸기 때문일것이라고 말했다.

『終戰전 한때 일본땅에는 2백만명이넘는 한국인이 살고있었잖아요。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거나 일본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찾아온 못배우고 가난한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먹고살기 수단방법 안가리고 발버둥거리기도 했을것이요, 완력을 쓰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매일 목욕을하는 일본사람들이니 한국사람은 더럽다고 욕도했겠지요. 일본의 강제동원과 수탈에 희생된 불쌍한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보고 죄의식은 느끼지못하고 나쁘게만 보았으니 일본사람들은 나쁩니다』

그 일본인의 합리적인판단력과 양심에 기자는 감동했었다.그의 말이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66만명의 한국인들이 왜 고향을 버리고 일본땅에 살고 있는지, 그 비극의 사단(事端)부터 일본국민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어찌 일본땅에뿐이랴!사할린땅에서 남녘하늘을 향해 눈을 감지도못하고 죽어가는 동포들은 왜 그런 운명이 되었으며, 중공땅과 소련땅에서 서울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한국동포들이 왜 거기 살고있어야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어야한다.

「스시」가 먹고싶어서가 아니라, 일본이 저지른 무모한 침략, 전쟁놀이의 제물이란는 것을.

일본젊은세대의 오도된 對韓國, 韓國人 인식을 바로 잡아야할 책임은 바로 교과서왜곡을 주도한 戰前세대가 져야할것이다.

【文昌宰記者】

◇재일동포 중학생 林賢一군의 죽음은 한때 일본사회에서는 물론 한국에서까지 큰문제가 됐었다。사진은 지난 80년9월 새싹회주최로 열린 林군추모식。왼쪽은 티없는 표정으로 공놀이를 하던 생전의 林군.

제2회 브랜든스포츠사배 쟁탈
추계야구대회

종　목 : 대표팀, O.B팀(1951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　시 : 1982년9월4일, 5일(토·일)오전8시30분
장　소 : 센테니얼파크야구장
참가비 : 팀당 $70
주장회의 : 8월28일(토)오후7시브랜든스포츠사내
연락처 : 박재선 755－6434
브랜든운동구점 598－3732
주　최 : 브랜든스포츠사
후　원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한인야구협회

宣告도 法定최고刑…전원 有罪

李圭光엔 4년…추징금 1億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주범 李哲熙·張玲子부부에게 검찰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전광업진흥공사사장 李圭光피고인에게는 징역4년(구형5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 주심 李玲愛·배석 張容國판사)는 9일 상오9시30분 형사대법정에서 이사건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이 출정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李·張부부에 대해 검찰공소사실을 전부 인정, 사기및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미화80만달러, 일화8백만엔및 한화1억6천2백54만6천7백40원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병과했다. 李圭光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林在琇 7년·孔德鍾 4년
李·張사건宣告공판
邊康雨5년·朱昌均3년

재판부는 또 전조흥은행장 林在琇피고인(51)에게 업무상배임및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59)에게는 업무상배임및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共榮토건 회장 邊康雨피고인(47)에게는 업무상배임및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5년을, 상무 邊泰洙피고인(48)과 감사 金東羲피고인(47)에 대해서도 같은죄를적용, 징역4년과 징역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日新제강회장 朱昌均피고인(61)에 대해서도 배임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한편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피고인(52)에대해서는 검찰공소사실중 단기금융업법위반부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특가법위반(탈세)부문도 일부만 인정돼 검찰의 예비적청구죄명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으로벌금50만원이 선고됐다.

共榮토건총무이사 邊衡佐피고인(44)에 대해서는 사기부문은 무죄가선고되고 증권거래법위반죄만이 적용돼 징역2년에 벌금50만원이 선고됐으며 日新제강사장 裵吉勳피고인(35)에 대해서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裵吉勳피고인과 전 조흥은행 지점장들인徐斗寅, 金重壽, 金沠鎬피고인, 大和산업의 尹錫鉉, 金正一, 任文淳피고인, 전안기부직원宋正光피고인, 사채업자 趙祥弼피고인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서 2년까지에 집행유예 2년~3년까지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共榮토건과 日新제강이 李·張부부에 대해 신청한 각각 1천4백67억원과 3백51억원의 배상명령을 각하했으며 邊衡佐, 金重壽, 金正一, 趙祥弼피고인의 보석신청도 이날자로 기각했다.

이로써 邊衡佐, 金守哲, 裵吉勳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찰공소사실의일부가 무죄판결을 받았을뿐 피고인32명전원에대해 검찰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李·張부부등 주요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각종증거로보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李·張부부에 대해 『관련피고인 29명을 창출했으며 기업을 도산에 빠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가치판단을 흐리게했다』면서 『특히 상식에 벗어난 어음 유통행위로 말미암아 그자금이 정치자금이라는 낭설을 낳게하는등 사회를 혼미와 불신풍조속으로 몰아넣은것은 응분의 속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29명의 피고인들도 李·張부부의 범죄행위에 말려든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범죄행위에 직·간접으로 연관돼 사회에 돌이킬수없는 피해를 준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점은 양형에 참조가 되어야할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李圭光피고인에 대해서는 『李·張부부의 사기범행과 직접관련은 없으나 청탁을 단호히 거절못해 사회지도급인사로서 타의 귀감이되지못하고 사회정화기풍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李·張부부의 어음사기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2배수어음의 활용을사전에 약속했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에 자신들의 자금을 대여한게 아니고 2배수어음을 미리받아 사채시장에서할인한 일부를 대여한점▲共榮·日新관련피고인 뿐만아니라 太陽금속, 라이프주택, 三益주택, 해태제과의 간부들 역시 李·張부부가 대여액초과부분은 담보용이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초과어음의 유통을 기업관계자들이 합의하자 음성자금의 양성화과정에서 일부가 사채시장에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한점 ▲유통을 사전에 알았다면 기업이 직접 사채시장에서 할인할것이지 李·張부부에게 교부했을리가 없는점 ▲사채시장에 기업어음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발행기업의 신용이 추락하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질것이라는점을 알면서도 기업들이 2배수어음을 유통용으로 교부했을리가 없는점등으로 미루어 사기행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李·張부부의 어음결제방법이 오로지 주식투기에서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처음부터 결제능력없이 기업관계자들을 속여 어음을 편취하려한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共榮및 日新관련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李·張부부에게 속았을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배임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인식만 있어도 성립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회사채지급보증등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업무상배임죄는 인식으로만도 가능할뿐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은행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라고 볼수없다』고 유죄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에서 成敏慶부장검사와 李明載검사가 참석했고 28명의 변호인중 都台求 李在祥 金仁燮변호사등 7명만이 공판을지켜봤으며 李·張부부의 변호인인 文相翼변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후 成부장검사는 『판결문이 세밀한데까지 자세히 언급돼있는것 같다』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대한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사건 1심공판은 지난달7일 첫공판이 시작된 이래 이날 선고공판까지 8회의 공판이 열려 공판시작 32일, 기소67일만에 끝났다.

金守哲등 10명석방

이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日新제강사장 裵吉勳피고인(35)등 9명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金守哲피고인(52·張여인의 첫남편)등 모두10명은 하오늦게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判決에 만족" 李대검수사부장

李種南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날『李·張부부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등 주요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피고인별 항소여부에 따라 오는16일께 검찰의 항소를제기하겠다』고 밝혔다.

"抗訴하겠다" 辯護人들

공판이 끝난후 대부분의변호인들이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할뜻을 밝혔는데 田永栄피고인의 변호인인 金昌國변호사가 이날하오 제일먼저항소장을 접수시켰다.

李·張부부의변호인인 文相翼변호사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孔德鍾피고인의 변호인 李在祥변호사도 『항소하겠다는 말이외는 판결에대해 할말이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된 尹錫鉉, 金正一피고인의 변호인인 金昌國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던만큼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공판이 끝난후 피고인들을 못만나보았기때문에 10일중에 피고인들을 면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으나 항소할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宣告법정에 들어서는 李·張부부. 단죄의 법정에 초조한 표정으로 李哲熙·張玲子부부가 들어서고있다.

◇피고인별 선고 형량

피고인	나이	직업	죄명	구형량	선고형량
李哲熙	59	大和산업회장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외환법	징역15년 몰수 80만달러 / 추징20만불 5백만엔 몰수8백만엔	징역15년 몰수 80만달러 / 추징1억6천2백54만원 몰수8백만엔
張玲子	38	〃 명예회장	〃		
金濟振	53	〃 사장	업무상배임	징역2년	징역1년6월
尹錫鉉	35	〃 이사	〃	징역1년	징역1년집유2년
金正一	38	〃 경리부차장	〃	〃	〃
金勇男	38	〃 비서실차장	외환관리법	징역2년	징역1년6월
林在琇	51	전朝興은행장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징역10년 추징금1억5천만원	징역7년 추징금1억5천만원
李斗●	51	〃 영업부장	업무상배임	징역2년	징역2년
徐斗寅	47	〃 半島지점장	〃	〃	징역2년 집유3년
金重壽	51	전南大門지점장	〃	〃	〃
金沠鎬	48	〃 德壽지점장	〃	〃	〃
邊康雨	47	共榮토건회장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징역7년	징역5년
金東羲	47	〃 감사	〃	징역5년	징역2년
邊泰洙	48	〃 상무	〃	징역7년	징역4년
邊衡佐	44	〃 총무이사	사기, 증권관리법	징역3년, 벌금50만원	징역2년,, 벌금50만원
共榮		법인체	증권관리법	벌금2천만원	벌금2천만원
朱昌均	61	日新제강회장	배임증재, 수표법	징역5년	징역3년
孔德鍾	59	전상업은행장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징역7년 추징금5천만원	징역4년 추징금5천만원
裵吉勳	35	日新제강사장	부정수표법	징역2년	징역1년6월집유3년
李圭光	57	전광진공사장	특가법	징역5년, 추징금1억원	징역4년, 추징금1억원
金守哲	52	張여인첫남편	특가법 단기금융업법	징역5년(예비청구 2년) 벌금50만원	벌금50만원
郭慶培	35	사채업자	단기금융업법	징역2년	징역2년
金鍾茂	45	〃	〃	〃	〃
田永栄	36	〃	〃	〃	〃
張東浩	49	〃	〃	〃	〃
金永哲	36	〃	〃	〃	〃
黃赫老	49	〃	〃	〃	〃
李殷圭	51	〃	〃	〃	징역1년6월
趙祥弼	45	〃	〃	〃	징역1년6월집유3년
徐香蓮	55	〃	외환관리법 단기금융업법	징역3년	징역2년 추징금3억2천만원
宋正光	42	전안기부직원	뇌물수수	징역2년 추징금1백만원	징역1년6월 집유3년
任文淳	40	大和산업부장	뇌물공여	징역1년6월	징역1년, 집유1년

李圭光피고, 시종 재판부응시
판결문 낭독중에 한숨소리도

○…이날선고공판은 상오9시30분 정각에 시작, 1시간22분동안 계속, 10시52분께 끝났다.

許正勳재판장은 이날 1백4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따금씩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아냈고 피고인들도 수의소매로 계속 땀을닦았다.

許부장판사가 『李·張피고인이 재원을 오로지 주식투자란 모험적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 구조에서 볼때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며…』라는 부분을 읽을때는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판결요지설명후 형량이 선고되는순간 피고인들은 대부분 표정했고전조흥은행 지점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그제서야 잠시 피고인석이 술렁였다.

李·張부부는 검찰구형대로 징역15년이 선고되자 미리 각오라도한듯 미동도하지 않았고 李圭光피고인은 징역4년이 선고되자 재판장이 판결요지에서 『군문에 기여한 공과 건강상태를 참작한다』『사회지도급인사가…용서받을수 없다』는 귀를 기울이는표정.

朱昌均피고인은 재판장이 『동서간으로 정상참작』이라고 설명하자 사위인 裵吉勳피고인을 민망한듯 쳐다봤으며 孔德鍾피고인은 시종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특히 金守哲피고인은 일부무죄가 선고되고 50만원이내의 벌금형이 떨어지자 변호인석의 都台求변호사를 쳐다보며 고개를끄덕였고 이때옆자리의 피고인들은 석방을축하한다고 속삭이기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범부터 심리하던 순서를 바꿔 맨마지막피고인이던 宋正光任文淳피고인부터 판결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자 피고인석에서는 가끔한숨소리가 들리기도했다.

○…이날판결문은 타자기로 친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절반에가까운 63페이지가 각 피고인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시했고 재판부의 정상론을 한줄도 안비친채 許부장판사가 메모지에적어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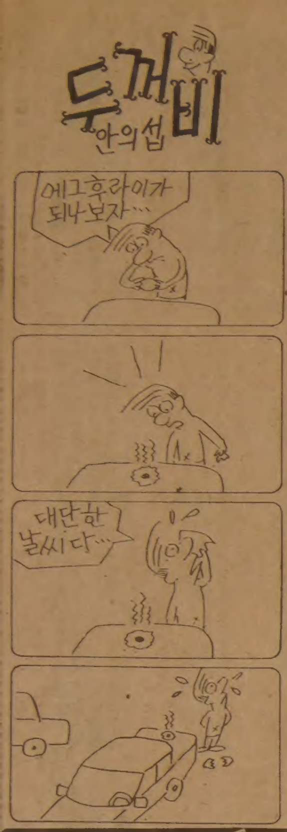
○…許正勳재판장은 이날 공판을끝내고 『정신없는나날이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것』이라며 정상론요지를보여달라는 기자들의질문에『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맞머리를 돌렸다.

주심 李玲愛판사와 배석張容國판사도 『꼭 한달동안 씨름했던 작업이 모두끝나 홀가분하다. 늦은휴가를 떠나야겠다』며 피로한 기색이었는데 이날 재판부에는 휴가를 마치고온 동료판사들이들러『수고가 많았다』며 위로하기도했다.

○…이사건의 최종적인 재판부합의는 지난4·5일 이틀동안 마무리했으며 판결문작성은 지난주동안 이뤄졌다. 지난주동안 許부장판사실의 문에는 『합의중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내걸고 외부인사의 접근을 막았다.

합의가 끝난후인 지난6일부터 許부장은 바로 옆방인 李·張두판사실에 들어가 토론끝에 작성에 들어갔고 토요일인 7일하오 모든직원들이 퇴근한것을 확인한후 타자기 4대를 李판사실로 옮겨 판결문 작성작업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일요일인 8일에도 나와 문을걸어잠근채 판결문 타이핑작업을 계속, 9일 새벽3시께야 40매의 유인물을 완성했다는것.



불볕더위 1週째
安東37도…피서人波 4백70만

연1주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볕더위가 고개숙일줄 모르는 가운데 일요일인 8일 우리나라는 安東의 섭씨37도를 최고로 전국이 모두 33도이상을 기록했다.

이날 4백70여만명이란 금년들어 최대의 피서인파가 해변과 유원지로 몰렸다.

중앙기상대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계속 세력을 뻗치고 있어 앞으로도 1주일이상폭염이 계속될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익사자도 52명으로 기록적인 숫자였다.

한편 불볕속에서도 大邱에서 8일하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20여분간 21·4㎜의 강우량을보였고 이바람에 송전선과 케이블이침수돼 시내거의전역이 전화가 불통되고 정전되기도했다.

중앙기상대는 11일께 약한 기압골의 통과로 전국에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태풍통보 1호를 발표, 제11호 태풍세실이 9일낮 12시현재 대만동쪽 해상에서 북상중이라고예보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센터빌딩에 불
10층 美은행支店 전소

7일 하오 11시20분께 서울中區 小公洞91의1 시청앞 센터빌딩10층 미국 신탁은행(BTC) 서울지점사무실에서 불이나 10층내부 2백10평을 모두태워 5억여원의 재산피해를내고 1시간45분만에 꺼졌다. 야간 근무자가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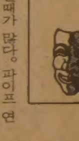
불이나자 인근 프라자호텔 조선호텔 롯데호텔의 투숙객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는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처음불이 10층텔렉스실에서 일어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누전으로 추정, 정확한화인을조사중이다.

「漢江 맨」
漢江水理모형실험팀장 安守漢씨
"生態系손상, 시간지나면 復元된다"

漢江水理모형실험팀장인 安守漢교수(57·사진·서울大토목공학과)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성가신 눈치다. 서울東大門區徽慶洞 국립건설연구소에 설치된 수리모형시설에는 토목관계자, 언론인등이 매일 찾아와 물어보고사진찍고 『갑자기 극성』이어서 『실험이 안된다』.

꼼꼼하니에 수건차고 바지걷고 막일판의 십장처럼 험렵한 차림으로 뙤약볕아래서 그는 하루종일 일하고 있다. 대학원·학부학생들이 일이 서툴러 자신의 손길이 더갈수밖에 없다. 漢江의 길이를 2백분의1로 축소해놓고 70개지점에 고무파이프를 박아 수위를 측정하는일도 손수 할때가 많다. 파이프 연결과정에서 기포가 들어가면 측정이 잘못되므로 잔소리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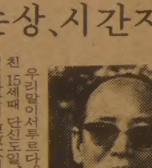
1천4백톤의 수돗물을 저수탱크에 담아 이물을 순환시켜 계속 쓰는 단순해보이는 실험이지만 『물을 함부로 쓰지말라』고 강조한다.

그는 물을 자주 마신다. 땀을 많이 흘리기때문이다. 또 손수건을 쥐고 있다. 지난4월 실험을 시작하면서 내용을 브리핑할때도 잔뜩 구겨진 손수건을 놓지않고 있었다.

『漢江개발을 위해서는 각계의전문가들을모아 공청회를 여는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는 없을것이고, 있더라도 시간이지나면 복원될것으로 보고있다.

공교롭게도 「安守漢」이란 이름을 풀이하면 『漢江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뜻』이다. 漢江과의 인연은 60년대초부터 시작돼 昭陽댐공사에앞서토목학회 위촉을받아 유수·홍수량을 측정했고 토목회사고문으로 衣岩댐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도 해주었다.

이번에 벌이는 실험은 84년3월까지 모두 12가지. 지난4월12일부터 주3회 강의를 제외하고 매일상오8시부터 하오6시까지 이곳에서 살고있다.



우리말이서투르다. 보통학교를 마친 15세때 단신도일, 日本에있던아버지와살며 東京大대학원까지 마친뒤 30세때 귀국했다. 이곳을 찾은 全大統領이 어눌한점을 지적하자 안내했던 金聖培서울시장이 『그사람은 日本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웃었을 정도다.

집에있으면서도 없다고 친구의 전화를 받지않는 자녀들을 꾸짖는 대쪽성깔이며 1백여쌍을 주례하면서 『質實』을 강조해왔다. 『공무원이 됐으면 절대 출세하지 못했을』 꼬장꼬장한사람이다. 【任喆淳기자】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5 Years+5 Years

...AL ESTATE
LT... REALTOR
161 ...AN MILL RD.SUITE ...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9, 6개월: $50, 년: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주소 APT
도시 주
우편번호
크레딧·카드넘버: VISA 매스터카드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 큰 병 $6.99 ~~$9.50~~
●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6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면	.89	~~.99~~
냉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쌀
사실때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영조
주소: 1391 WESTON RD. ☎: 243-9544

초반추격 허사… 東萊、培明에 무릎 16-7

慶北·光州一·清州·大田 3회전 티킷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서울의 城南高·培明高가 2회전의 난관을 뚫고 16개팀이 겨루는 봉황대기 3회전에 진출했다。培明高는 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9일째 2회전 경기서 수비가 미숙한 東萊高 내야진을 기록적인 10개의 도루로 교란해 홈스틸로만 3점을 올리며 16-7로 대승했다。城南高는 왼손 에이스 李國成의 역투로 聖光高33타자를 9회동안 산발4안타 2포볼2희타 4삼진으로 완봉、4-0으로 승리했다。이날 群山商高는 4회말 소나기 8안타를 터뜨려 일거에 6점을 뽑아내 心石綜高에 7-1로 대승했다。8일 2회전서는 慶北高 光州一高 淸州高 大田高등 4개팀이 각각 승리、3회전에 올랐다。

培明高·東萊高

東萊는 주자협공의 기본기마저 갖추지못해 초반 4실점의 암울한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기력을 탐진、자멸하고 말았다。

고양이가 어리면 쥐에게도 놀림을 당하게 마련이다。培明은 1회초 2死후 포볼로 나간 1루주자를 두고 4번 朴興德이 중전적시타를 때렸으며 중견수가 이타구를 뒤로 빠뜨리는 사이 1점을 선제했다。

5번 朴旭炫은 다시 포볼을 골라 나가 고의로 1、2루사이에서 협공을 유도했다。

東萊야수들이 허둥지둥 朴旭炫을 좇는사이 3루주자 朴興德은 손쉽게 홈을 밟았다。

培明은 2회초에도 2死후 1안타1포볼2도루2敵失로 2점을 추가 4-0으로 리드。

東萊는 2회말 3안타로、4회말 7번대타 方俊鎬의 대회8호 솔로홈런과 2안타로 각각2점을 얻어 간신히 4-4의 타이를 만들었다。

6회까지 안타수에서 4-8로 뒤지던 培明은 7회초에 3안타、포볼4 그리고 발빠른 주자들의 교란작전으로 연달아 2개의 홈스틸에 성공하여 3점을 올렸다。

東萊가 7회말 연속3안타로 2번째로 7-7의 동점을 이루자 培明은 8·9회초 집중7안타를 터뜨려 16-7로 승부를 결정했다。

기진맥진한 東萊는 막판 고비를 막느라 3차례나 포수를 투수로、1루수로 1루수를 포수로 자리를 교체하는 동네 야구를벌였다。

光州一·釜山商

0-1로 끌려다니던 光州一은 5회말 뜻밖의 행운을 맞았다。선두 6번 朴哲祐가 중전안타로 나가 보내기 번트로 2루에서 살자 釜山商 왼손에이스 李弦澤이 비위에 거슬렸던지 기습적 견제를 던졌다。악송구가된 볼은 외야로 빠져나갔고 2루의 朴哲祐는 3루까지 뛰었다。

당황한 李弦澤은 스퀴즈에 대비하느라 볼을 빼다가 8번 文熙洙、9번 金鎬貴를 연속 포볼로 내보내 1死만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光州一 1번 金星圭는 흔들리는 마운드위 李弦澤을 강공、볼카운트 1-1에서 우전결승타를 날렸다。스코어는 단숨에 2-1로 뒤집혔다。

釜山商은 1회초 선두 洪龍이 光州一 선발 李強喆을 좌월2루타로 공략、후속땅볼과 3번 李弦澤의 적시내야땅볼로 홈에 뛰어들어 1점을 선제했었다。

光州一은 2회부터 文熙洙로 마운드를 정비、釜山商의 李弦澤과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1m80의 장신 왼손잡이 李弦澤은 절묘한 코너웍으로、1m60의 단신 文熙洙는 슈트를 구사하며 타자들을 압도했다。

釜山商은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4번 鄭海德을 포볼로 진루시켰으나 역전을 기대하며 강타일변도로 밀고가다 번퇴당했다。

◇제9일 2회전

군산상고	000	600	100	7
심석종고	000	000	100	1

▲군산상투수=李東錫(1·7회) 李光雨(5회) 金德二(7회) 趙啓顯(9회) 포수=張虎翼 ▲심석투수=金正洙 吳仁根(4회) 포수=金昌喜 ▲안타=군상14-3심석

성광고	000	000	000	0
성남고	000	010	03×	4

▲성광투수=吳永錫 포수=崔在涉 ▲성남투수=李國成 포수=裵德鎭 ▲안타=성광4-8성남

배명고	220	000	363	16
동래고	020	200	300	7

▲배명투수=朴興德 趙原澄 포수=曺慶宇 ▲동래투수=徐浩振(1·7회) 金正奎(7·8회) 포수=金正奎(1·7회) 趙城太 ▲안타=배명14-13동래 ▲홈런=方仲鎬(4회·동래)

◇제7일전적 ▲2회전

경북고	390	31	16
남대전고	000	00	0

<5회콜드게임>

▲경북투수=李常勳 李政潤(2회) 포수=金台榮 ▲남대전투수=金顯宇 趙誠珉(1회) 포수=趙誠珉 金顯宇(1회) ▲안타=경북15-2남대전 ▲홈런=柳光鎭(4회·3점·러닝·경북)

부산상고	100	000	000	1
광주일고	000	020	00×	2

▲부산상투수=李弦澤 포수=丁海德 ▲광주일투수=李強喆 文熙洙(2회) 포수=朴俊泰 ▲안타 부산상 6-4 광주일

청주고	100	000	000	1
포철공	000	000	000	0

▲청주투수=張定淳 포수=李換晃 ▲포철공투수=鄭胤守 李明雨(3회) 金寅洙(8회) 포수=金順源 ▲안타=청주 6-7 포철공

대전고	111	000	200	5
명지고	000	000	010	1

▲대전투수=李文載 朴鎬一(8회) 포수=朴宰鎭 ▲명지투수=金一重 포수=柳興坤 ▲안타=대전 11-4 명지

群山商 4회 단숨에 6點

장단8安打 집중… 心石綜 대파 7-1

◇"이제는 이겼다" 聖光高―城南高경기。 8회말 城南공격 1死후 3루주자 梁漢成이 裵德鎭의 좌월2루타로 홈인, 기쁜표정을 짓고있다。

◇스탠드의 열렬꼬마팬 삼총사 群山商―心石綜

경기가 벌어진 9일, 1루 외야쪽 스탠드에 해태타이거즈 모자를쓴 金亨泰(발산국5년) 燕敏군(〃3년)형제와 옆집친구 權혁준군(〃2년)이 열렬히 群山商을 응원, 눈길을 끌었다。亨泰군은 『아버지가 군산서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群山商과 해태를 좋아한다』며 싱글벙글。

봉황 스타

光州一高 1번타자 金星圭

찬스에 강한 야무진 배팅

光州一高 1번 金星圭(2년)는 찬스에 강한 천부적인 타자。1-0으로 리드당하고있던 5회말 만루찬스에서 釜山商투수 李弦澤의 제3구를 1루수 키를 살짝넘겨 승부를 결정지었다。『감독님으로부터 강공으로 맞서라는 지시를 받았어요。마침 평소 좋아하던 인코스 약간 높은 직구가 들어오길래 힘껏 휘둘렀읍니다。』좌타자인 金은 1m69、58kg의 작은체구지만 야무진 배팅을 보인다。金大權감독 역시 이점을 높이 평가、초구부터 좋은 볼을 노려 적극 공격을 하도록 지시한것이 성공한것。올해 전국규모대회 통산타율 3할5푼。현재는 좌익수이지만 無等中 시절에는 투수로도 활약했다。전남長省출신으로 토건업을 하는 김용식씨(47)의 2남2녀중 장남。영화감상이 취미다。

培明高 5번타자 朴旭炫

수비교란 히틀러作戰 주역

培明高의 승리는 일명히틀러작전이라는 비밀무기와 5번타자 朴旭炫(2년)의 재치로 이루어졌다。주자 1·3루의 찬스서 培明高 王相均감독이 오른 손을 번쩍처들면 1루주자가 2루로 뛰고 수비가 이를 협공하는사이 3루주자는 홈으로 뛰어든다。히틀러작전은 주로 내야진이 당황을 잘하는 신생팀과의경기서 잘쓰는 작전으로 90%의 성공률을갖고있다고。東萊高도 培明高의 2차례 히틀러작전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날 서울운동장 관중들에게 히틀러작전을 처음선보인 주인공은 朴旭炫。7회초 2死에 주자는 1·3루。5-4로 리드한 培明高의 감독사인이 나자 1루주자는 투수가 투구모션에 들어가려는 순간 2루로 뛰고 그가 1·2루사이서 협공 당하는 틈에 3루에있던 朴旭炫은 내야진의 허를 찌르고 홈을 밟아 東萊高의 얼를 완전히 빼놓았다。유격수를 맡고있는 朴은 12초5의 준족에다 두뇌가 명석하고 재치있는 선수라고 王감독은평한다。

魯貝宣 감격의「金」

세계J레슬링 孔龍日「銀」·金海龍「銅」

한국金1、銀3、銅4로 4位

◇魯貝宣

한국의 魯貝宣(18·주택공사)은 8일 美國플로리다도 스프링스에서 폐막된 82년도세계주니어 아마레슬링 선수권대회 자유형 주니어플라이급(48kg) 경기에서 美國의 글로리를 판정(10-4)으로 물리치고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사상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56kg의 孔龍日은 소련선수에 판정패(5-4)、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플라이급(52kg)의 金海龍은 3위를 차지했다。한국은 자유형경기서 금1、은3、동메달1개를 얻어 캐나다와 함께 종합 4위를 차지했다。

레슬링 세번째「金」 84올림픽 밝은전망

魯貝宣의 금메달은 張昌善·梁正模에 이어 한국레슬링이 세계대회에서 거둔 세번째 쾌거이다。

全南咸平이 고향인 魯는 咸平中2년때 레슬링을시작、咸平農高를 거쳐 금년 住宅公社에 입단한후 주니어대표코치인 裵基烈코치의 지도를 받아왔다。

1m65、48kg의 魯는 태클과 안아넘기기등 테크닉이 일품이지만 체력보강이 필요하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국내 주니어플라이급 2위여서 孫甲道와 막상막하의 라이벌이다。뉴델리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이번 대회의 우승을 계기로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유망주로 등장했다。

伊 안토뇨니 逆轉결승골

FIFA 올스타戰

유럽、「기타世界」팀 3-2로 꺾어

【뉴욕=金泰雄특파원】세계축구 올스타전이 8일 아침(한국시간) 이곳 자이안트·스타디움서 열려 유럽선발팀이 「기타 세계선발팀」을 3-2로 물리쳤다。

유엔아동후기금을 마련하기위한 이대회에는 7만6천8백91명의 유료관중이 입장했다。

기타 선발은 전반서 벨루미(28분) 지코(35분)의 득점으로 2-0의 리드를 잡았다。후반에 접어들자 유럽선발이 맹공세를 펼쳐 키건(58분) 페차이(79분)의 득점으로 2-2 타이스코어가 됐으며 경기종료 2분전 이탈리아의 월드컵스타 안토뇨니가 결승골을 터뜨려 유럽선발에 3-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한국、日에 기권敗

대학柔道단체전

【야바스킬라(핀란드)=閔炳宅특파원】한국은 8일 야바스킬라에서 속행된 제7회세계대학생유도선수권대회 단체전 A조1차전경기에서 中共을 7-0으로 눌렀으나 2차전에서 日本에 기권패、탈락했다。

한국、1승1패

메르데카蹴球

【콸라룸푸르=8日聯合】한국은 8일밤 콸라룸푸르에서 속행된 제26회 메르데카배국제축구대회에서 인도네시아를 4-0으로 완파하고 1승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8분 柳東春의 25m 강슛으로 리드를잡고 후반서 3골을 추가、완승했다。

한국은 10일 말레이지아와예선 세번째경기를 벌인다。

◇제2차전

한 국 4 (1-0 / 3-0) 0 인도네시아

南北韓 12일 격돌

亞洲청소년축구 한국、싱가포르 6-0大破

【싱가포르=千一平특파원】한국은 8일 이곳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동부예선전B조 마지막 경기에서 홈팀인 싱가포르에 6-0으로 대승、예선B조에서 3승1패로 中共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12일 하오9시40분(한국시간) 준결승전서 북한과 대결할 것이 확실하다。

이때까지 남북한은 청소년축구서 두번 대결、각각1승1패를 기록했었다。

한국은 싱가포르와의 경기서 李基根 申連浩 李太炯이 각각2골씩 기록했다。

東獨 여자부金10개

世界水泳强國 다시浮上

세계水泳선수권

【콰야킬(에콰도르)=8日聯合】東獨은 8일 폐막된 제4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제1위의 수영강국으로 다시 올라섰다。

東獨은 여자부에서 금메달10、은7、동2개를 따내고 세계신기록 3개를 수립했으며 美國은 금2、은3、동6에 그쳤다。남자부에서 美國은 금6개로 1위를 차지했다。

78년 西베를린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美國이 여자부에서 금9、남자부에서 금11개를 획득했었다。

프로야구

롯데 鄭文燮 그랜드슬램

李鍾道·咸學洙이어 세번째 記錄

鄭文燮이 프로야구 3번째 만루홈런을 터뜨렸다。

롯데자이언츠의 2번타자 鄭文燮은 8일 三美슈퍼스타즈와의 仁川경기 9회초 1死만루에서 三美구원투수 印浩鳳의 초구를 좌측스탠드로 넘겨 롯데가 7-1로 이기는데 수훈을 세웠다。

鄭의 이날 그랜드슬램은 李鍾道(MBC) 咸學洙(三星)에 이어 3번째다。롯데 金用熙의 올스타전 만루홈런은 공식경기 기록에서 제외된다。

OB·베어스의 桂瀅鐵은 大田경기에서 역투、MBC青龍을 5-0으로 제압、첫완봉승을 올렸다。

桂瀅鐵은 이날 MBC의 34타자를 맞아 안타3개、포볼6개를 허용하며 무실점으로 완투、후기리그에서만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후기중간순위 <8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三 星	12	3	·800
②O B	10	4	·714
②MBC	10	4	·714
④롯 데	6	8	·429
⑤해 태	4	10	·286
⑥三 美	1	14	·067

◇8일전적

◆서울

삼 성	000	213	220	10
해 태	000	100	000	1

◆대전

MBC	000	000	000	0
O B	110	000	21×	5

◆인천

롯 데	000	010	006	7
삼 미	100	000	000	1

▲홈런=鄭學守(5회) 鄭文燮(9회·만루·이상롯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 ⑳

『고모 아무쪼록 우리 끝까지의 상하지말고 잘 지내요。시집갈땐 친부모하구도 의 상하는 일이 많대요。그렇지만 우린 피차 교양인 아녜요?』

영란이 교양인중의 교양인답게 희미하고 씁잡스럽게 웃으면서 일어섰다。영란이 나가자 수지는 싸구려물건처럼 흔해빠져도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믿어온 고독이란 말이 한바가지의 찬물처럼 실감있게 그녀에게 끼얹혀진 것처럼 느껴졌다。이세상의 그 어떤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고독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관계속에서의 그것을 당하진 못하리라。

수지도 자기에게 그런 고약한 고독감을 안겨준 걸 올케라고 생각하진 않았다。올케는 어차피 남남이고 오빠 수철이가 이를 갈고싶게 야속했다。

수지가 수철이한테 앙갚음할수있는 시기는 뜻밖에도 빨리 왔다。

터무니 없이 성대한 약혼식을 치르고 결혼날짜를 달포쯤 앞두고였다。

전시용으로 골고루 구색을 갖춰놓았다뿐이지 별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는 일이 없는 수철이 서재에서 수지는 자기의 책을 추려내고있었다。그녀가 산 책이나 교과서로 쓰던 책도 솔이 두텁고 장정이 그럴듯한것은 수철이 서재에 꽂혀 있었고 수지는 혼수중에 책도 상당부분 차지해야 된다는 지적인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학시절、한때 꽤 많은 책을 모아들였지만 다 읽은건 아니어서 어떤 게 자기책인지 구별안되는 책이 많았다。다행히 그녀는 책뒷장 안쪽에다 꼼꼼하게 책을구입한날짜와 자기이름을 서명해놓고 있었다。

긴가민가한 책만 뽑아 서명을 확인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다。그러다가 자기책이 아닌줄 알면서도 무심히 뽑아든 솔 두꺼운 일본책 갈피에서 조각조각 오린 신문지 한다발이 흘러 내렸다。

꽤 오래전 신문인 듯 노랗게 변색한 크고 작은 조각들이 마루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사뿐 했는데도 수지는 왠지 그 소리와 동시에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겁게 철썩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그것 들을 주워모았다。그것들이 흘러 내릴 때 섬광처럼 머리에 지나간 생각은 틀림이 없었다。그건 전후 몇년동안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한창 활발할 때 각신문에서 다투어 취급하던 자식이 부모를、부모가 자식을 찾는 무료광고 및 개인적으로 낸 유료광고중에서 오린 거였고 하나 같이 오목이가 낸 광고였다。

그럼 수철이도 오목이가 수인이라는걸 알고있었단 말인가? 대개의 광고가 오목이의 그 당시의 사진까지 싣고있었다。

긴가민가해서 오래됐을 가능성보다는 확실히 알면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더많았다。수지는 수철이가 소년시절부터 바로 몇해전까지 얼마나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수인이를 찾아헤맸으며、광고를낸 것만도 거기 떨군 신문조각의 수효의 몇곱절은 된다는걸 알고있었다。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이런 지극스럽고 눈물겨운 우애로하여 수철이가 일가 친척으로부터 얼마나 칭송과 존경을받고있나를 알고있었다。

수지 역시 그런 수철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랑스럽고 미덥기도 했지만 자신의 어린 날이 저지른 악마 짓에 대해 더 더욱 무서운 가책을 느껴야만 했다。수철이의 도덕은 그녀에겐 가혹한 형벌이었다。

수철이의 변함없이 극진한 우의에 비해 자기는 얼마나 용서받지못할 계집애였던가。얼마나징그러운 악마였던가。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경 석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C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삼담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라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무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
월~금(주말은 쉼) 11:00 a.m~4:00 p.m
전화 : 438-0403 (6시 이후, Mrs. 유)

Helper (주말: 토요일-6시간, 일요일-9시간)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 일해주시면 보다 바람직함.
두사람에게 1주에 $120 지불함. 686-0491(B) 686-0848(R)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출부 Club 모집
여가를 이용해서 남을 도와 주실수 있는분
선착순 약간명 모집. 상세 상담 매일 6시이후 직접 방문요함. 전화문의 사절.
714 Bloor St. W. 2층 2호실
제일식품 후문 옆집. (Mrs. 한)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Cashier 여자분 구함(주말 Helper 토·일)
Downtown지역.
전화 : 921-0624

Grocery & Variety Store Manager구함.
주매상 : $5,000, 보증금 : $10,000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베비시터

Baby Sitter 구함.(Jane & Finch 지역)
전화 : 665-4612

입주하셔서 아기 보아주실분 (4살, 1살)
전화 : 447-1460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보아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24시간(월 9:00~토 7:00까지)도 가능하며 저희가 데리고오며 데려다 드립니다. 전화 : 651-5388 Mrs.채

입주하셔서 애들 살펴 주실분 구함. (4살·5살)
한가족처럼 지내고져 함. (Lakeshore & Islington)
전화 : 259-6528

구혼

결혼상담, 1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고급 콘도미니움 급매(Jane & Eglinton)
고층 APT로서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음.
(옥외 정구장,Sauna,실내 Pool장,각종 오락시설등)
2Bed Rm+Den. 가격: $70,000
(B)534-1085, (R)244-9073(오후6시이후)Mr. Kim

아스킹 : $150,000. 14%. 5Years.
커다란 파킹장을 구비한 모퉁이의 2층 벽조건물
4 Apt. 2 Stores.
년수입(건물에서) : $24,500. 주매상 : $4,000(Stores)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Realtor.

Fiat 128 급매. $1,000
Certified. Gas 절약형.
전화 : 762-3247, 533-2364 (Mr. 유)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Convenience Store for Sale. (Jane & Bloor)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5,000+Stock (361 Windermere Av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조그만 가게 급매.
주매상 : $3,500 전화 : 923-9771

Store Equipment for Sale
One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 (30 Lb.)
& 기타. 전화: 746-0107(오후8시 이후) 1-727-5902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ding 매매. 8 Rooms. 어떤 Business에도 적합한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임. 전화 : 921-9847 (William)

Variety Store for Sale
주매상: $4,000~$4,500 Extra 수입: $1,000
아스킹: $45,000+Stock 전화 : 1-525-2115(해밀톤 Mr.Kim)

Building & Snack Bar Business for Sale
Asking: $95,000. Down: $25,000 1st mortgage at 13%. Weekly Turnover : $3,000
(Queen St. W. & East of Dufferin)
Call Olga Krawec 769-1723
Glen Park Real Estate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Fish & Chips for Sale
주 5일 영업.(Mon.-Fri.: 10:00a.m.-4:00p.m.)
주매상 : $4,000 아스킹 : $179,000 전화 : 759-4761 (Vaso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적당한 가격으로 팔 예정.
전화 : 531-5005(R) 531-1023(B) (Yoly)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집렌트

4 Bed Rm. House전체를 싸게 세놓음.
Bramalea 부근. $500/M.
전화 : 630-3095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힌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6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